한반도 출토 漢代 화폐와 그 의미*

- 古朝鮮 멸망이후 삼한지역 교역체계의 변동과 관련하여 -

박 선 미**

〈目 次〉

Ⅰ. 머리말
Ⅱ. 지리적 분포와 특징
Ⅲ. 출토 화폐의 종류와 유적 검토
Ⅳ. 삼한지역의 교역확대
Ⅴ.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기원전 1세기 이후 한반도의 화폐 출토 양상에 변화가 있음을 주목하고 화폐의 확산과 함께 나타나는 漢物의 증가현상을 고조선의 멸망과 한군현의 설치라는 정치적 변동과 연동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반도에서 발견된 화폐유적의 지리적 분포와 출토 현황을 지도와 도표로 정리하였다. 북부의 경우 평양지역을 중심으로, 중부 이남의 경우 내륙과 해안의 교통로를 따라 화폐유적이 분포하고 있었다. 이는 고조선 시기의 화폐유적이 주로 압록강－대동강 일대에 散在하고 그 이남에는 분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현상이다. 또한 평양 일대에서 발견된 반량전 거푸집은 그동안 한군현 설치 이후로 편년되면서 낙랑군의 鑄錢을 보여주는 고고학 자료로 해석되었으나 이 거푸집은 이미 고조선 시기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고조선이 멸망한 기원전 1세기가 되면 중부 이남으로의 화폐유입 현상 외에도 漢鏡, 馬面, 帶鉤, 낙랑계토기 등 한나라의 문물과 한나라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유물의 출토가 증가한다. 이는 고조선의 멸망이 삼한지역의 교역체계에 변동을 일으킨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고조선이 수행한 완충교역이 사라지면서 삼한사회의 제한적 對漢 교역은 한나라에 의해 설치된 낙랑군을 통한 직접교역으로 변화되었다. 漢-古朝鮮-辰國의 교역 관계에서 漢-(한군현)-삼한이라는 새로운 교역 관계가 들어섰던 것이다.

완충교역의 소멸은 곧 삼한지역의 교역확대를 의미하였으며, 한반도 중부 이남의 정치세력 간 교역 또는 대외교역체계의 변동을 일으킨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對倭교역의 확대와 집단 간 계층화를 촉진시켰다. 문헌에 辰國으로 대표되는 한반도 중부 이남의 정치체가 三韓으로 대체되는 것도 단위집단의 특정 상품에 대한 접근성이 보다 수월해지면서 지역집단간의 차별화와 집단 내 계층화를 촉진시킨 결과로 파악하였다.

주제어 : 고조선, 진국, 삼한, 한군현, 화폐, 완충교역

* 이 논문은 2007년도 국사편찬위원회의 연구지원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강사

www.kci.go.kr

Ⅰ. 머리말

문헌에 辰國과 三韓이 위치해 있던 것으로 기록된 한반도 중부 이남에서는 고조선이 존속했던 시기로 편년되는 유적에서 청동주조화폐가 공반되지 않는다. 그러나 고조선이 멸망한 기원전 1세기가 되면 한반도의 화폐 출토 양상에 변화가 나타난다.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는 화폐유적[1]이 평양 일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주로 분묘유적에서 출토되며, 중부 이남지역의 여러 유적에서도 화폐가 공반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현상은 布錢, 明刀錢, 半兩錢 등 戰國~秦漢 初의 화폐가 한반도 서북부를 중심으로 하여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 유역에 산재되어 분포하고 중부 이남에서 출토되지 않는 것과 대조된다.

주지하다시피 이와 같은 변화가 나타나는 기원전 1세기는 고조선의 멸망과 한군현의 설치라는 정치적 변동의 시기였다. 따라서 화폐출토 양상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고조선의 멸망과 이에 따른 한반도 내부 교역체계의 변동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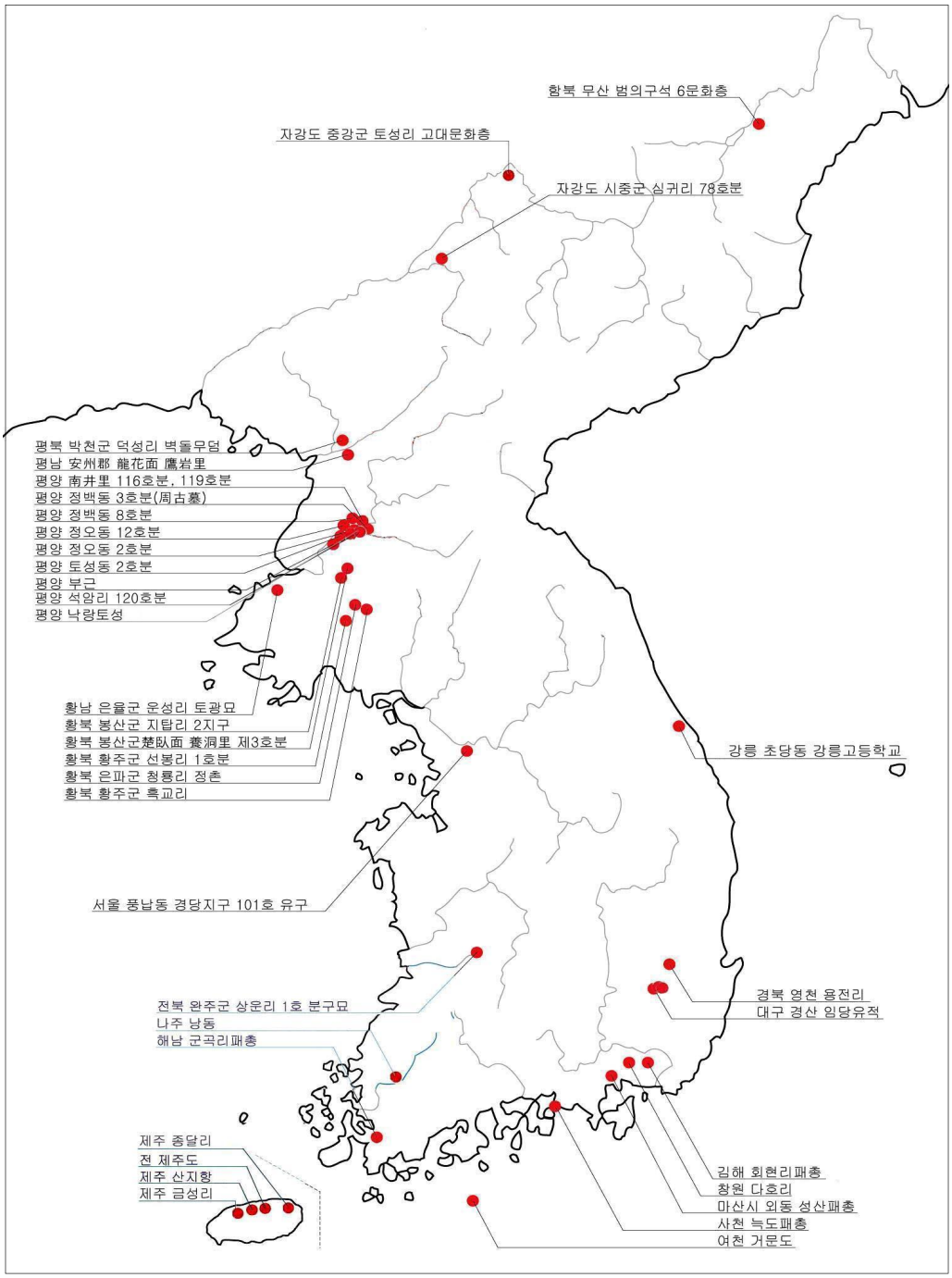
이에 현재까지 한반도에서 발견된 漢代 화폐 출토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고 고조선의 멸망이 삼한지역의 교역체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왔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학계에 보고된 발굴보고서를 중심으로 하여 한대 화폐유적을 검토하고 지리적 분포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공반유물을 검토하여 당시 교역의 변동 양상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Ⅱ. 지리적 분포와 특징

한반도에서 조사된 화폐유적 가운데 고조선 멸망 후로부터 기원 3세기대로 편년되는 유적은 39곳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유적에서는 전국시대의 명도전이나 서한 초의 반량전이 간혹 출토되기도 하나 대부분 후대의 화폐와 공반되고 있다. 주로 서한 후기와 동한의 五銖錢을 위주로 하여 貨泉, 大泉五十 등의 王莽錢이 출토된다. 한반도에서 조사된 한대 화폐유적 중 고조선 멸망 후로 편년되는 유적은 〈지도 1〉 및 〈표 1〉과 같다.

1) 화폐유적이라 함은 주조화폐나 실물화폐 등 화폐로 사용된 유물이 한 점이라도 출토된 유적을 말하며 여기에는 출토 화폐, 공반유물, 유구 등이 포함된다.

www.kci.go.kr



〈지도 1〉 고조선 멸망 후 한대 화폐유적의 위치

www.kci.go.kr

〈표 1〉 고조선 멸망 후 한대 화폐 유적 현황[2)]

번호	유 적	화폐 종류	공반유물				유적 편년
			철기	청동기	토기	기타	
1	은율군 운성리 토광묘	西漢五銖錢1	도끼,차축두,鐵舌	세형동검,협봉동모,동탁,마탁,금동고리,일산대	각종 토기	石舌	B.C.1세기 경
2	봉산군 지탑리 2지구	오수전1	활촉,鐵滓	놋반지1,놋붙이조각1	회백색등근항아리,멍석무늬와그물무늬압인문단지와항아리,압인문배떠리,보시기,각종시루	기와,벽돌,토제가락바퀴,토제어망추,구슬,짐승뼈	
3	봉산군楚臥面養洞里 3호분	大泉五十5					
4	황주군 선봉리 1호묘	오수전9		금동장식못40,마탁편1	회색토기편1,흑갈색토기편2,흑갈색무문토기편1.	청색유리제환옥29,홍색마노제환옥3,황색마노제환옥1,토제구슬3	1세기 이후
5	은파군 청룡리 정촌	五銖錢3	차축두	세형동검,검병두,금동고리,차축두,銅筒,日傘頭	각종 토기	홍색구슬,골편	B.C. 1세기
6	황주군 흑교리	西漢五銖錢2		세형동검1,협봉동모1,검파두식1,乙형기2,笠形柄頭3,비수1,弓橈爪1			B.C. 1세기
7	평양 南井里 116호분	五銖錢85,貨泉2	刀子	銅鏡,車馬具冥器 외 다수	각종 토기	금은장식,벽돌,와당 외 다수	1세기 이후
8	평양 南井里 119호분	오수전3,대천오십1			각종 토기	인골편, 각종 칠기류	2세기경
9	평양 정백동 3호분(周古墓)	명도전2,오수전10	긴쇠칼2,도끼1	좁은놋창끝1,창집1,띠걸이2,거울2,주전자1	화분형단지2,배부른단지1,병1,회색단지9,백색단지1	은가락지1,구슬61,구슬장식9,옻칠귀잔10여점,칠반5,옻칠화장품곽,칠곽6,칠상1,옻칠숟가락2,옻칠나막신,옻칠나무베개,양산,벼루,목간,은제도장,견직물조각,감투조각,나무빗1	B.C.1세기 후반
10	평양 정백동 8호분	貨貝100여매	작은쇠단지1,큰쇠단지1	금동단추3,가락지모양청동기1,반원동형기1,굽단지1,시루2,단지1,버치1,세발솥2,대야1,굽접시18		칠바리4,칠반4,귀잔27,소라조개2,노끈토막,삿조각,모직천조각,솔1.	1세기 초~2세기 초

2) 이외 자강도 만포군 등공리에서 古錢이 출토되었다고 전해지나 명확하지 않다.(사회과학원고고학및민속학연구소, 1959,「우리나라 원시유적의 분포정형」『문화유산』1, 87쪽)

www.kci.go.kr

11	평양 정오동 12호분	오수전 60여매		거울2	백색질그릇단지,검은질그릇단지2,회색질그릇단지2	은가락지10,은팔찌2,옥돼지2,홍문마개1,칠상1,귀잔7,칠반3,화장품통1,숫기와막새1,천조각	1세기 말
12	평양 정오동 2호분	오수전1		거울1,금동장식못1	회백색독2,회백색단지2,화분형단지1,회색단지1	머리꽂이1,귀걸이2,은가락지4,귀잔5,칠기4,칠상1,칠기2,담요1,복숭아씨1,벽돌24여개	2세기 초
13	평양 토성동 2호분	오수전6			회백색단지1,청회색단지1,부뚜막모형1,가마솥모형3,시루모형1,토반3.	관못3	2세기 중~ 3세기 초
14	평양 석암리120호	오수전 2백수십매	목실내부				B.C.1세기~A.D. 3세기
15	평양 낙랑토성	오수전,화천,대천오십,소천직일 등 수십매	성 내부				B.C.2세기~A.D. 3세기
16	평양 부근	오수전 수십매, 小泉直一1,貨泉5,貨布1					1세기 이후
17	安州郡 龍花面 鷹岩里	오수전5		노기,고리,銅轡			B.C.2세기 말 이후
18	박천군 덕성리 벽돌무덤	오수전38	관못, 칼조각3	띠걸이1	도기편	칠갑장도칼,옥돼지2,거섭,눈가리는옥,색옥,백색관옥,흑색관옥,도주,벽돌,기와	1~3세기
19	시중군 심귀리 78호 무덤	오수전1			갈색간그릇조각, 검정간그릇조각		
20	자강도 중간군 토성리유적 고대문화층	오수전 소량					B.C.1세기 이후
21	무산 범의구석 6문화층	오수전					
22	강릉 초당동 강릉고교1호주거지	오수전2		고리	무문토기 구연부 및 저부편		1세기 중·후반
23	서울 풍납동 경당지구 101호 유구	오수전1	철기편		광구단경호,고배,삼족기,施釉陶器,錢文陶器 외 다수	전돌,기와,각종 동물뼈외 다수	3세기 후반

www.kci.go.kr

24	완주군 상운리 1호 분구 2호묘	반량전1			연질호2	금박유리옥1,옥593	4세기 중후반
25	나주 낭동	화천2			蓋,高杯 외 토기편	유리구슬,녹색유리슬래그	4~5세기
26	대구 경산 임당 AI-74호 목관묘	오수전1	철검				1세기 초
27	대구 경산 임당 AI-121호 목관묘	오수전1	철검2			칠기	1세기 초
28	대구 경산 임당 E-132호 목관묘	오수전1	철모,철도자,철사,철착	안테나식검파두식	주머니호		1세기 초
29	영천 고경면 용전리	오수전 3	銊,戈,斧,鉇,鐵,鎌	戈,銊,노기	주머니호		B.C.1세기 후반
30	마산 성산패총	오수전1			적갈색연질토기,회청색경질토기 외		B.C.1세기
31	김해 회현리패총	화천1					1세기 후반
32	창원 다호리 1호묘	오수전3	검,銊,斧 외	검,星雲文鏡,띠고리,동탁		붓5	B.C.1세기 후반
33	사천 늑도패총 C지구 상층부	사수반량전4,오수전1			낙랑계토기,미생계토기	卜骨	B.C.2세기~기원전후
34	여천 거문도	오수전980				木板片	1~2세기
35	해남 군곡리패총	화천1					1세기 중반
36	제주 산지항	오수전4,화천11, 천오십2,화포1		거울, 靑銅製金具		?	1세기 후반
37	제주 금성리	화천2			적갈색항아리형토기,연질토기	방추차,석기	2~3세기
38	제주 종달리	화천1	도자,철관편		삼각형점토대토기,와질토기편,경질무문토기편 외 다량의 토기편	석기,옥기,골각기 외	1세기
39	전 제주도	오수전11,대천오십5,화천5					

www.kci.go.kr

〔참고문헌〕 *참고문헌의 번호는 위 〈표 1〉의 번호와 대응함

1. 과학원고고학및민속학연구소, 1958,「황해남도 은률군 운성리 토광묘 발굴 보고」『고고학자료집』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 도유호, 1961,「지탑리원시유적」『유적발굴보고(지탑리원시유적 발굴보고)』8, 과학원출판사./도유호・황기덕, 1957,「지탑리유적 발굴 중간보고(1)(2)」『문화유산』5, 6호.
3. 14,16,17.梅原末治・藤田亮策 編著, 1948,『朝鮮古文化綜鑑 Ⅱ』, 養德社, 43～47쪽.
4. 과학원고고학및민속학연구소편, 1959,「황해북도 황주군 선봉리1호묘 발굴 정리보고 『고고학자료집(대동강 및 재령강유역 고분발굴보고)』2.
5. 황기덕, 1959,「1958년 춘하기 어지돈 관개공사구역 유적정리 간략보고(Ⅱ)」『문화유산』2, 과학원출판사.
6. 梅原末治・藤田亮策, 1947,『朝鮮古文化綜鑑Ⅰ』, 30～32쪽.
7. 濱田耕作, 1934,『古蹟調査報告第一 - 樂浪彩篋塚』, 朝鮮古蹟研究會, 5～73쪽.
8. 藤田亮策, 1935, 古蹟調査報告第二-樂浪王光墓』, 朝鮮古蹟研究會, 53～62쪽. 도판 94.

9～13.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 1983, 낙랑구역일대의 고분 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6,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5. 關野貞 外, 1927,「樂浪郡時代ノ遺蹟(本文)」『古蹟調査特別報告』第四冊, 35～38쪽. 및 도판 9,10.
_____, 1925,「樂浪郡時代ノ遺蹟(圖版上冊)」『古蹟調査特別報告』第四冊, 도판 44～61.
18. 신의주박물관, 1961,「평안북도 박천군 덕성리 전곽무덤 발굴 간략보고」『문화유산』5, 과학원출판사.

19.20. 정찬영, 1983,「압록강・독로강 유역 고구려 유적 발굴보고」『유적발굴보고』13,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5,「무산범의구석」『고고민속논문집』6.
22. 강원문화재연구소, 2005,「강릉고등학교화장실 증축공사부지내 문화유적 시굴조사보고서」『강릉지역문화유적시굴조사 보고서』.
23. 한신대학교박물관, 2005,『風納土城 Ⅵ - 慶堂地區 中層 101號 遺構에 대한 報告-』.
24. 전북대학교박물관, 2004,「익산-장수간 고속도로 건설구간내 완주 상운리 유적 발굴조사 제2차 지도위원회의 및 1차 현장설명회」자료./김승옥・이택구, 2004,「완주 상운리유적 발굴조사 개보」『제28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발표요지』, 한국고고학회.
25. 전남문화재연구원, 2004,『羅州 郎洞遺蹟』, 전남문화재연구원・나주시.

26～28.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8,『慶山 林堂遺蹟(Ⅰ)-A～B地區 古墳群』 및『慶山 林堂遺蹟(Ⅵ)-E地區 古墳群』./한국상고사학회 편, 2000,『임당의 고분과 생활유적』, 학연문화사, 107～169쪽.

29. 국립경주박물관, 2007,『永川 龍田里 遺蹟』.
30. 김원룡, 1974,『韓國考古學年報』2, 서울대학교박물관, 24～25쪽./최몽룡, 1976,「西南區貝塚發掘調査報告」『馬山市外洞城山貝塚發掘調査報告』, 문화재관리국, 127～128쪽, 172쪽 도판 41.
31. 梅原末治, 1923, 金海貝塚發掘調査報告」『大正九年古蹟調査報告』, 37～38쪽, 도판 27.
32. 이건무・이영훈・윤광진・신대곤, 1989,「義昌茶戶里遺蹟發掘進展報告Ⅰ』『考古學志』1.
33. 동아대학교박물관, 2003,『發掘 遺蹟과 遺物』, 예맥출판사./신용민, 2003, 사천 늑도유적 출토 반량전・오수전 소고」『경남지역의 고대문화』, 경남지역문제연구원.

www.kci.go.kr

34. 지건길, 1990, 南海岸地方 漢代貨幣」『昌山金正基博士華甲記念論叢』, 昌山金正基博士華甲記念論叢刊行委員會.
35. 최성락, 1987,『海南 郡谷里貝塚』1, 목포대학교박물관・전라남도 해남군, 63쪽, 117쪽 그림35, 181쪽 사진121.
36. 梅原末治・藤田亮策, 1947,『朝鮮古文化綜鑑 Ⅰ』, 57~59쪽, 및 도판 31./이청규・강창화, 1994, 濟州道 出土 漢代 화폐유물의 한 例」『한국상고사학보』17./이청규, 1995,『濟州道 考古學 硏究』, 학연문화사, 195~197쪽.
37. 제주대학교박물관, 2001,『濟州錦城里遺蹟』,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제주대학교박물관・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38. 국립제주박물관, 2006,『濟州 終達里遺蹟 Ⅰ』.
39. 梅原末治・藤田亮策, 1947,『朝鮮古文化綜鑑 Ⅰ』, 57~59쪽, 도판31./이청규, 1995,『濟州道 考古學 硏究』, 학연문화사, 193~197쪽.

위의 〈지도 1〉과 〈표 1〉에 제시한 유적 외에 한반도 북부 지역의 경우 일제강점기의 발견 등 국내에 미처 알려지지 않은 사례도 예상되므로 고조선 멸망 이후로 편년되는 한반도의 한대 화폐유적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평양 지역의 전실묘 내에 안치된 목관의 겉면을 오수전 모양으로 장식하거나[3] 오수전 모양의 옥 장식품이 부장된[4] 경우도 있어서 당시 화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던 점을 감안할 때 그 가능성은 높다.

〈지도 1〉에서와 같이 고조선 멸망 후로 편년되는 화폐유적은 한반도 전역에 분포하고 있다. 앞 시대와는 달리 중원지역의 화폐가 한반도 전체로 유입된 셈이다. 그런데 한반도 북부와 중부 이남에 위치한 화폐유적의 지리적 분포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한반도 북부의 경우 화폐유적이 주로 대동강변의 평양 일대에 집중되어 있다. 한반도 북부에 분포하는 21곳의 화폐유적 가운데 47.6%인 10곳이 평양 일대에 있고, 28.6%인 6곳이 대동강 이남의 황해도 일대에 산재해 있다. 이외 청천강변에 2곳(9.5%)이, 압록강 남안의 독로강변에 2곳(9.5%), 두만강 남안의 무산에 1곳(4.8%)이 위치해있다.

반면 한반도 중부 이남의 경우는 어느 특정한 곳에 밀집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지역에 분포하는 18곳의 화폐유적은 주로 해안과 내륙의 강변을 따라 넓게 분포하고 있다.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 8곳, 동해안에 1곳이 분포하고 있어서 중부 이남의 화폐유적 18곳 중 50.0%인 9곳이 해안에 면해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 내륙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나주 낭동, 창원 다호리, 김해 회현리 등과 같이 해안과 가까운 내륙의 하천을 따라 분포하는 경우가 3곳(16.7%)

3) 梅原末治・藤田亮策 編著, 1948,『朝鮮古文化綜鑑 Ⅱ』, 養德社, 44쪽.
4) 梅原末治・藤田亮策 編著, 1959,『朝鮮古文化綜鑑 Ⅲ』, 養德社, 21~22쪽.

www.kci.go.kr

이다. 서울 풍납동, 전북 완주군 상운리, 경북 영천시 용전리, 대구 경산 임당 등 나머지 6곳(33.3%)도 내륙의 하천과 멀지 않는 곳에 위치한다.

이상과 같이 한반도에서 조사된 한대 화폐유적의 지리적 분포는 북부와 중부 이남이 다소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한반도 북부는 평양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서북부 지역에 밀집해 있고, 한반도 중부 이남지역에서는 특정한 지역에 밀집해 있지 않는 대신 해안과 하천을 따라 분포하고 있다. 그러면 화폐유적이 분포하는 지정학적 위치를 살펴보자.

먼저 한반도 서북부의 경우 평양일대는 대동강 상류에서 청천강으로 이어지면서 압록강 이북으로 통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해당한다. 이 일대에 구석기시대를 비롯하여 신석기시대의 유적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평양은 비파형동검의 발생지로 지목되기도 하였다.[5] 시기가 내려오면 초기 세형동검 관련 유적이 다수 분포하며 귀틀무덤, 벽돌무덤 등 소위 낙랑계 유물이 공반되는 유적이 밀집해 있다. 이 때문에 이곳은 일찍이 위만조선의 수도인 왕검성으로 주목되었고, 최근에는 고조선 전 기간의 중심지, 즉 王京으로 비정되고 있다.[6] 기원전 2세기 말 이후의 화폐유적이 평양 일대로 집중되는 현상도 이상과 같은 고고학적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데 기원전 2세기 말 이전, 즉 명도전이나 포전 등 고조선 시기로 편년되는 화폐유적은 평양지역 보다는 오히려 압록강 좌우 연안이나 청천강 유역에 밀집해 있다. 기원전 2세기 말 이후에 화폐유적이 평양일대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평양지역이 기원전 2세기 말 이후에 교역의 중심지적 기능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한반도 중부 이남의 화폐유적은 특정한 지역으로의 밀집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해안, 또는 해안과 가까운 하천, 내륙의 하천을 따라 분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 화폐유적을 잇는 선이 일종의 교역루트를 나타내지 않을까 추정하기도 한다. 해안가에 면해 있는 유적 중 늑도유적은 화폐 외에 일본열도의 야요이토기와 낙랑토기 등이 출토되어 한반도와 일본열도를 이어주는 교역의 거점지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7] 제주 종달리유적은 직선거리로 약 750m 거리에 해안선이 있는 곳에 위치하는데, 유적 형성 당시에는 유적의 가까이까지 바닷물이 들어와 해안선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8] 유적 주변에는 신석기시대 이래 다양한 생활유적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고, 일제강점기에는 이 일대에 일본으로 향하는 항로가 개설되기도 하였다. 종달리유적이 위치해 있는 일대가 선사시대 이래 생활중심지 중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외 화천 등의 왕망전과 동한 오수전 등이 나온 해남 군곡리패총, 여천 거문도, 김해 회현리,

5) 박진욱, 1965,「평양일대에서 새로 발굴된 고인돌과 돌관무덤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1, 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
6) 류병흥, 1995,「단군 및 고조선 시기의 유적유물 발굴성과에 대하여」『조선고고연구』1, 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
7) 이동주, 2004,「泗川 勒島遺蹟 C地區의 調査成果」, 영남고고학회 제13회학술발표회 발표요지문, 141쪽.
8) 국립제주박물관, 2006,『濟州 終達里遺蹟 Ⅰ』.

www.kci.go.kr

마산 성산패총 등도 이와 유사한 지정학적 요로에 위치해 있다. 또한 해안에 가까운 내륙의 하천가에 있는 유적 가운데 다호리유적은 북쪽으로 약 10㎞ 거리에 낙동강가의 本浦가 있고, 낙동강을 따라 내려가면 김해와 부산까지 갈 수 있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9] 당시에도 이 강을 따라 많은 교류가 있었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비교적 내륙에 위치한 영천 용전리유적도 주변에 금호강의 지류인 古村川이 흐르고 있어 금호강변을 따라 포항을 통해 해안으로 나가기가 어렵지 않다.[10] 유적 주변에 청동유물의 출토로 유명한 어은동유적, 사라리유적 등이 위치해 있기도 하다. 경산 임당유적도 금호강변에서 멀지 않다.[11] 이외 서울 풍납동, 전북 완주군 상운리 유적 등도 교통의 요지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한반도에서 조사된 한대 화폐유적의 분포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한반도 북부의 경우 평양지역을 중심지로 하여 서북부에 밀집해 있고, 중부 이남지역은 해안과 내륙의 교통로를 따라 분포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황은 각 지역에 화폐유적을 남긴 주인공, 교역의 여건 등이 달랐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반도 전체를 두고 보았을 때 평양지역을 중심권역으로 하여 화폐가 주변지역으로 퍼져나갔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당시 한반도 내 정치세력 간의 교역 혹은 대외 교역시스템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한반도 서북부를 통하지 않고 중원 지역과의 직접 교역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Ⅲ. 출토 화폐의 종류와 유적 검토

1. 한반도 북부

한반도 북부에서 조사된 화폐유적 가운데 고조선 멸망 이후로 편년되는 유적에서 출토한 화폐는 明刀錢, 五銖錢, 貨泉, 貨布, 小泉直一, 大泉五十 등 여섯 종류이다. 이중 명도전은 평양 정백동 3호분, 이른바 周古墓에서 오수전 10매와 함께 출토한 사례 외에는 없다. 아래의 〈표 2〉, 〈그림 1〉, 〈그림 2〉는 한반도 북부에서 조사된 화폐유적 중 고조선 멸망 이후로 편년되는 유적에서 출토한 화폐의 종류를 나타낸 것이다.

9) 이건무 · 이영훈 · 윤광진 · 신대곤, 1989, 「義昌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Ⅰ) 『고고학지』1, 한국고고미술연구소.
10) 국립경주박물관, 2007, 『永川 龍田里遺蹟』.
11)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8, 『慶山 林堂遺蹟(Ⅰ)-A~B地區 古墳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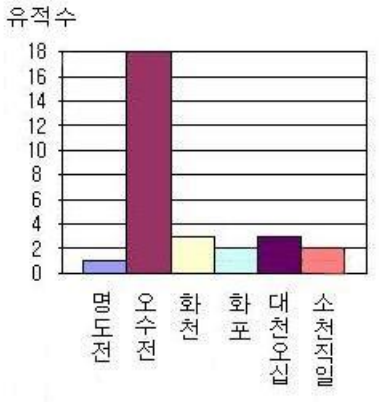
www.kci.go.kr

〈표 2〉 한반도 북부 한대 화폐 유적에서 출토된 화폐의 종류[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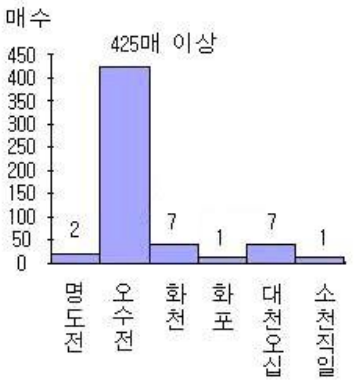
종 류	매수	출 토 지	크 기 (단위 ㎝)	형 태	출토 정황
오수전	수십매	평양 부근			오수전은 꾸러미로 꿰어놓은채 발견, 출토 유구 未詳
소천직일	1		직경1.39 두께0.14	내외곽 있음.	
화천	5		평균 직경2.33 두께1.65이며 작은 것 1매는 직경2.13 두께1.25	앞뒷면에 내외곽 있음.	
화 포	1				
오수전	85	평양 南井里 116호분			목곽묘
화천	2				
오수전	3	평양 남정리 119호분	직경2.5 두께0.18	외곽이 있고 비교적 또렷. 주조 후 마연된 흔적. 뒷면은 내곽이 넓어 내외곽 사이가 좁음.	횡구식석실묘
대천오십	1		직경2.7	내외곽이 있고 비교적 또렷. 전체적으로 두텁고 대형.	
명도전	2	평양 정백동3호분(周古墓)			부부합장목곽묘
오수전	10				
貨貝[12]	100여매	평양 정백동8호분			귀틀무덤
오수전	60여매	평양 정오동12호분			부부합장귀틀무덤
오수전	1	평양 정오동2호분			부부합장귀틀무덤
오수전	6	평양 토성동2호분			부부합장귀틀무덤
오수전	2백수십매	평양 석암리120호분			목곽묘
오수전	수매	평양 낙랑토성		동한오수전도 일부 있음.	성 안
소천직일	수매				
화천	수매				
대천오십	수매				
화포	수매				
오수전	5	평남 安州郡 龍花面 鷹岩里	1류.직경2.5 외곽두께0.23 2류.직경2.85 외곽두께0.18	1류.小郭輪 2류.厚郭輪 뒷면에 문양이 없고, 내외곽이 있음.	유구 未詳
대천오십	5	봉산군 楚臥面 養洞里 3호분	직경2.83 두께0.23~0.3	앞뒷면에 내외곽이 있음. 뒷면은 무문.	벽돌무덤
오수전	1	은율군 운성리 토광묘			움무덤
오수전	1	봉산군 지탑리 2지구			토성 근처
오수전	9	황주군 선봉리 1호묘			움무덤
오수전	2	황주군 흑교리	직경2.5 두께0.18	1매는 穿上橫文오수전, 앞면에 내곽 없고 뒤면에 내곽 있음.	흑교역 부근, 유구 未詳
오수전	3	은파군 청룡리 정촌			움무덤
오수전	38	박천군 덕성리 벽돌무덤			벽돌무덤
오수전	1	시중군 심귀리 78호 무덤			적석묘
오수전	소량	자강도 중강군 토성리			문화층
오수전	?	무산 범의구석 6문화층			문화층

12) 학명은 *Cypraea moneta*이며 일명 Money cowrie, 즉 돈개오지라고 불린다. 貨貝는 개오지과 중에서도 무늬가 없고, 볼록한 등 부분이 대개 노란색이나 갈색을 띤다. 외양적인 아름다움 외에 작고 휴대하기 편리하다는 점 때문에 일찍부터 장신구나 화폐로 사용되었다. 일본학계에서는 '寶貝'라고 부르고 있으며 북한학계와 국내학계의 일부에서는 '寶貝'를 '보배조개'라고 해석하여 사용하고 있다

www.kci.go.kr



〈그림 1〉 한반도 북부의 한대 화폐 유적수



〈그림 2〉 한반도 북부의 화폐별 출토량

출토된 화폐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면 유적수의 경우 오수전이 18곳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화천과 대천오십이 각각 3곳, 화포와 소천직일이 각각 2곳의 순이다. 출토량의 경우 매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수치를 계산해 보면 오수전이 425매 이상으로 확인되어 가장 많고, 다음으로 화천과 대천오십이 각각 7매, 명도전이 2매, 화포와 소천직일이 각각 1매이다. 이들 화폐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이미 학계에 보고된 바 있으므로[14] 본고에서는 재론하지 않기로 한다. 출토화폐의 종류, 화폐유적수, 화폐별 출토량 등을 통해 서한 이후 동한대까지 꾸준히 이 지역에 화폐가 유입,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화폐가 출토된 유구의 성격을 보면 무덤에서의 출토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림 3〉은 한반도 북부에서 조사된 화폐유적을 유구의 성격별로 구분한 것이다. 출토 정황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유적 가운데 문화층에서 출토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무덤의 부장품으로 출토되고 있다. 모두 21곳의 화폐유적 가운데 문화층 출토 2곳과 성터 및 성터 주변 출토 2곳, 출토지점을 명확히 알 수 없는 3곳을 제외하면 나머지 14곳(66.7%)이 무덤에서 출토한 셈이다. 화폐가 출토된 무덤은 적석묘 1, 움무덤 3, 목곽묘 3, 귀틀무덤 4, 벽돌무덤 2, 석실묘 1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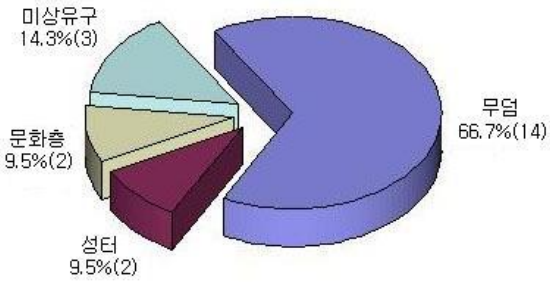
이들 화폐의 출토맥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이 주목된다.

첫째, 무덤의 구조면에서 볼 때 토착계와 외래계의 무덤에서 모두 화폐가 공반되고 있다는 점이다. 적석묘, 움무덤, 석실묘는 대표적인 이 지역 토착묘제이다. 목곽묘는 움무덤을 계승하여

13) 평양 낙랑토성 안에서 3~4매의 藕心錢이 출토되었다고 한다.(關野貞 外, 1927,「樂浪郡時代ノ遺蹟(本文) 『古蹟調査特別報告』第四冊 및 1925,「樂浪郡時代ノ遺蹟(圖版上冊) 『古蹟調査特別報告』第四冊, 圖版. : 梅原末治・藤田亮策 編著, 1948,『朝鮮古文化綜鑑 Ⅱ』, 養德社) 藕心錢은 화폐가 아니고 佩飾, 혹은 度量衡器의 일종으로서 서한대부터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黨順民, 1997,「藕心錢小議 『中國錢幣』1, 中國錢幣學會.)

14) 박선미, 2008,『貨幣遺蹟을 통해 본 古朝鮮의 交易』,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26~232쪽.

www.kci.go.kr



〈그림 3〉 한반도 북부 화폐 출토 유구의 성격

기원전 2세기 초부터 기원전 1세기 말까지 성행하다가 이후 귀틀무덤을 거쳐서 벽돌무덤으로 넘어 간 것으로 보고 있다.[15] 최근에는 목곽묘를 군현설치 이전부터 한반도 서북부에 존속했던 재지세력, 즉 위만조선 遺民의 분묘로 해석하고 있다.[16] 따라서 화폐가 부장된 무덤의 주인공은 고조선계와 한계 주민을 모두 포괄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화폐가 출토된 무덤이 그렇지 않은 무덤보다 화려하고 풍부한 부장품이 나온다는 점이다. 황주군 선봉리[17] 1호 무덤에서는 오수전 9매와 함께 부장품으로 금동 장식못 40, 馬鐸 파편 1, 구슬 38, 회색토기편 1, 흑갈색 토기편 2, 흑갈색 무문토기편 1점이 출토되었다. 금동 장식못은 목관이 썩은 외곽선 주변을 따라 출토한 것으로 보아 목관의 부재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평양 정백동 3호분(周古墓)[18]에서도 명도전과 오수전이 여성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널에서 나왔다. 이 널에서는 남색 유리구슬, 벽옥으로 만든 대롱구슬, 수정으로 만든 구슬, 청동거울, 은가락지, 화장품곽, 마노구슬, 화분형단지, 칠반, 귀잔, 화장품통, 옻칠한 나막신 한 켤레 등 화려한 부장품이 나왔다. 평양 정오동[19] 12호분에서는 남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서쪽 널 남쪽 부분에서 오수전 60여매가 옥돼지, 한경, 숫키와, 막새 등과 함께 출토하였다.

셋째, 화폐가 출토된 무덤의 대부분이 평양 일대에 밀집해 있다는 점이다. 이중 평양시 낙랑구역의 분포가 많다. 고조선 멸망 후 평양지역이 교역 등 경제적인 활동에서 중심적 기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15) 주영헌, 1963,「고구려 봉토 무덤의 기원과 그 변천 『고고민속』3.
황기덕・박진욱・정찬영, 1971,「기원전 5세기~기원전 3세기 서북조선의 문화」『고고민속론문집』3.
리순진, 1983,「우리나라 서북지방의 나무곽무덤에 대한 연구」『고고민속론문집』8.

16) 오영찬, 2005,『樂浪・帶方郡 支配勢力 硏究』,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49~59쪽.

17) 과학원고고학및민속학연구소편, 1959,「황해북도 황주군 선봉리1호묘 발굴 정리보고 『고고학자료집(대동강 및 재령강유역 고분발굴보고)』2.

18) 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 1983,「낙랑구역일대의 고분 발굴보고」『고고학자료집』6,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 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 1983, 위의 글.

www.kci.go.kr

넷째, 세형동검과 공반되는 현상이다. 세형동검이 화폐와 공반된 예는 은율군 운성리, 은파군 정촌, 황주군 흑교리 등 3곳이다. 운성리 토광묘[20]는 1954년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고고학 연구실에서 황해도 일대의 유적을 조사하던 중 발견한 곳이다. 이곳에서 오수전과 함께 세형동검 깨진 조각, 협봉동모, 쇠도끼, 청동 차축두, 금동고리, 청동일산대끝꼭지, 동탁, 石舌, 鐵舌, 馬鐸, 토기 등이 출토하였다. 정촌유적[21]은 1957년 11월에 조사된 토광목곽묘유적이다. 무덤은 파괴되었으나 부식한 나무 조각 다수가 발견되었다. 부장품으로 오수전 3매와 함께 세형동검, 청동제 검병두, 철제 차축두, 토기편 등이 출토하였다. 세형동검은 날이 세장하고 등날이 기부까지 내려온 말기 형식이다. 황주군 흑교리[22]의 경우 무덤유적은 아니지만 西漢 宣帝(기원전 78~49년) 때 주조된 穿上橫文五銖錢 2매가 세형동검, 동모 등과 함께 수습되었다. 동검은 날이 세장하고 등날이 기부 끝까지 나있는 늦은 시기의 세형동검이다. 화폐와 세형동검의 공반 사례가 적기는 하나 이러한 고고학적 정황은 고조선의 문화적 전통을 가진 재지세력에 의하여 화폐가 사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토성 내에서의 화폐 출토 양상이다. 토성관련 출토는 2곳이 확인되었는데 이 가운데 평양 낙랑토성의 화폐 출토양상이 주목된다. 낙랑토성은 토성동토성이라고도 하는데, 1920년대 조사당시에는 대동강면토성으로 보고되었다. 이 토성 안에서 반량전을 비롯하여 서한 오수전, 동한 오수전, 왕망전 등이 출토되었으며, 거푸집 殘片도 수매가 출토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낙랑토성을 낙랑군 설치시기로 편년하고 이를 낙랑군치지로 비정하는 견해[23]도 있으나 다음에 살펴볼 바와 같이 화폐와 화폐거푸집의 출토 맥락을 보면 이 토성은 낙랑군 설치 이전, 즉 고조선 시기에 이미 축조,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낙랑토성을 비롯한 평양 일대에 분포하는 여러 토성의 연대를 고조선 시기로 보는 북한학계의 견해[24]도 주목해볼만 하다.

이상과 같은 고고학적 정황은 평양지역을 중심지로 하여 교역활동이 이루어졌고, 이에 종사하는 이들은 사회적으로 부호층이었거나 특정 신분계층에 속해 있었으며, 이들 가운데에는 고조선의 재지세력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

20) 과학원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58,「황해남도 은률군 운성리 토광묘 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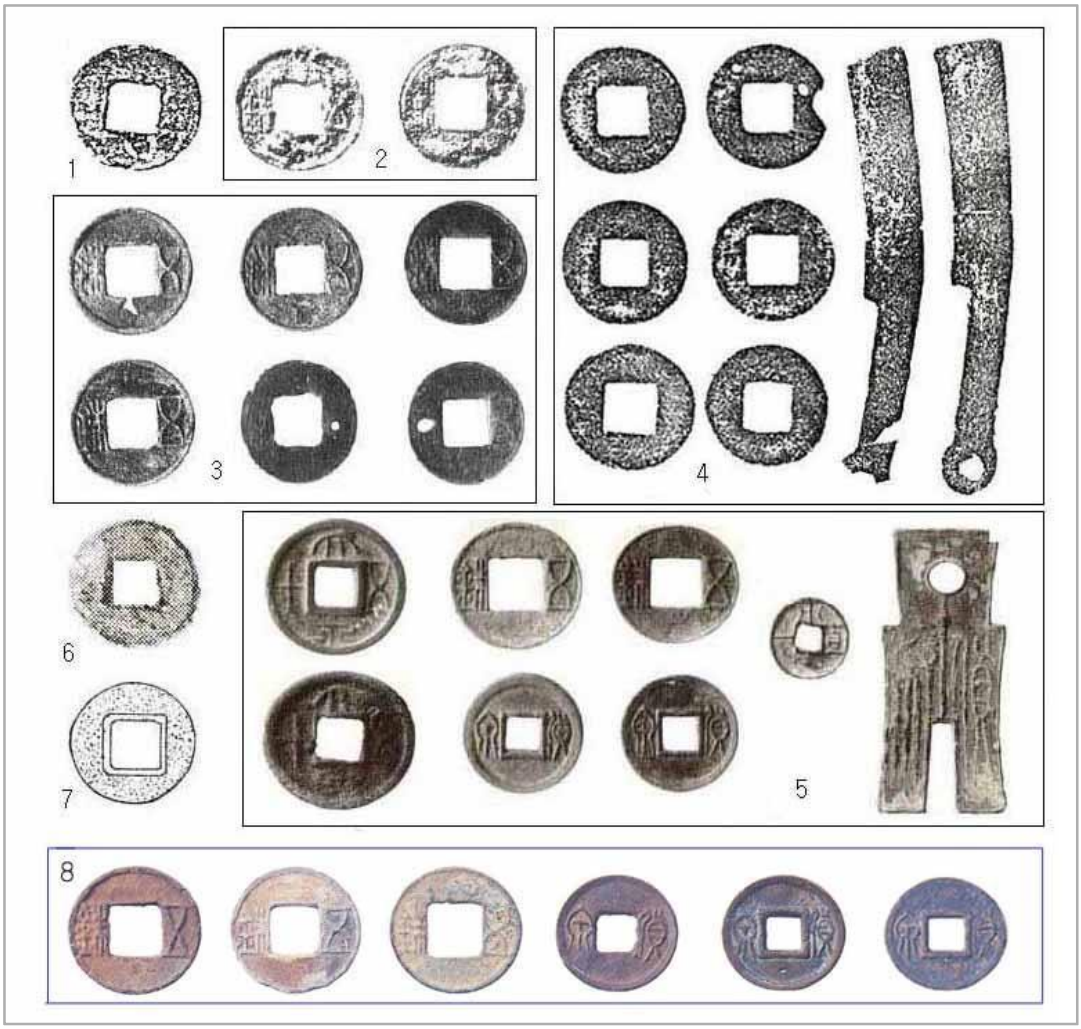
21) 황기덕, 1959,「1958년 춘하기 어지돈 관개공사구역 유적정리 간략보고(Ⅱ)」『문화유산』2, 과학원출판사.

22) 梅原末治・藤田亮策, 1947,『朝鮮古文化綜鑑 Ⅰ』, 30~32쪽.

23) 駒井和愛, 1964,「樂浪郡治址」『考古學研究』第三冊, 東京大學文學部考古學研究室.

24) 남일룡, 1996,「평양일대 고대토성의 축조여대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1, 16~19쪽.

www.kci.go.kr



1.황주군 선봉리 2.황주군 흑교리 3.평양 南井里 4.평양 정백동 3호분 5.평양 부근 6.박천군 덕성리 7.무산 범의구석 8.대동군 대동강면

縮尺不同

〈그림 4〉 한반도 북부 출토 각종 화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할 것은 평양 일대에서 출토하였다고 전해지는 화폐 거푸집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거푸집은 7매이며 모두 반량전 거푸집이다. 일제 강점기 때 평양 대동강면토성에서 채집된 3매, 토성동토성 내에서 발견되었다고 전해지는 것 2매(보고된 것은 3매이나 이중 1점은 대동강면토성 보고서와 중복 게재된 것임), 동경대학 고고학연구실에 보관되어 있는 낙랑토성 출토품 1매,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평양 출토품 1매이다. 대동강면토성, 토성동토성, 낙랑토성은 모두 같은 토성의 異稱이므로 6매의 거푸집이

www.kci.go.kr

같은 토성 안에서 출토된 셈이다.[25] 일찍이 이들 거푸집 출토를 근거로 하여 낙랑군에서 鑄錢이 이루어졌음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며[26] 한나라 초기의 반량전을 모방하여 위만조선에서 통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거나[27] 낙랑군에서 주조된 반량전이 늑도유적의 예와 같이 한반도 이남으로 이입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28]

그러나 위의 거푸집을 낙랑군에서 주조가 이루어진 고고학 자료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낙랑군이 설치된 시기는 반량전이 폐지된 후 10여년이 지난 후이다. 따라서 이미 폐지된 화폐의 거푸집을 낙랑군으로 들여왔을 가능성은 적다. 또한 낙랑군에서 반량전을 주조하였다면 낙랑군 설치 이후로 편년되는 주변지역의 유적에서도 반량전이 다수 출토되어야 할 터인데 사정은 그렇지 않다. 특히, 거푸집의 연대도 명확하지 않은데 이들 거푸집의 연대가 낙랑군 설치 이전으로 소급될 가능성이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한대 반량전은 秦의 반량전을 모방한 것으로서 오수전이 발행되기 전인 기원전 118년까지 주조, 유통되었다. 이중 한반도에서 출토된 반량전과 반량전 거푸집은 사수반량전으로서 한 문제 5년(기원전 175)에 주조되기 시작하여 기원전 118년까지 주조된 것이다. 사수반량전은 무제 건원 5년(기원전 136년)을 기준으로 하여 그 형태가 변화한다. 문제대인 기원전 175~136년 사이에 주조된 반량전은 직경 2.3~2.5cm, 穿徑 0.75~0.85cm, 중량 2.6~3.2g이 일반적이다. 앞면에 있는 半兩의 서체가 매우 嚴正하고 수려하며, '兩'자의 획 중 '入'획의 꼭지 부분이 길게 처리되어 두 개의 人자가 연결된 '兩'와 같은 모양이다. 이 때문에 이 시기에 주조된 반량전을 속칭 '連山形半兩錢' 혹은 '雙人形半兩錢'이라고 한다. 반면 무제대인 기원전 136년부터 기원전 118년 사이에 주조된 반량전은 직경 2.1~2.3cm, 穿徑 0.7~0.9cm, 무게 2g 정도이나 큰 것은 직경 2.5cm, 무게 2.5g인 것도 있다. 서체는 이전의 '兩'자와는 달리 획이 간략화되거나 생략되어 '兩'의 모양으로 변화된다. 이를 소위 '十字形半兩錢'이라고 한다.[29] 이 두 시기에 발행된 반량전은 이러한 서체상의 차이 때문에 비교적 쉽게 구분이 가능하다.

평양 지역에서 출토된 반량전 거푸집의 錢文을 보면 위의 두 가지 경우가 모두 확인된다.

토성동토성[30] 출토품은 한 농부가 토성 안에서 발견한 것이다. 활석제의 것인데, 3매 모두 일부가 결실된 것이어서 본래의 크기는 알 수 없다. 거푸집의 두께는 각각 1.17cm, 1.47cm, 1.93cm

25) 본고에서는 이 토성에서 채집된 거푸집을 당시의 출토지명에 따라 토성동 출토품, 대동강면토성 출토품, 낙랑토성 출토품 등으로 편의상 구분한다.
26) 梅原末治・藤田亮策 編著, 1948, 앞의 글, 43~46쪽.
27) 金鍾太, 1977,「樂浪時代의 泉幣銘文考 『全北史學』1, 전북대학교사학회, 208~211쪽.
28) 정인성, 2003,「弁韓・加耶의 對外交涉-樂浪郡과의 교섭관계를 중심으로 『가야 고고학의 새로운 조명』, 부산대학교 한민족문화연구소편, 569~570쪽.
29) 蔣若是, 1997,『秦漢錢幣研究』, 中華書局.
30) 梅原末治・藤田亮策 編著, 1948, 앞의 글, 43~47쪽.

www.kci.go.kr

이다. 3매의 거푸집에 새겨진 錢文은 내곽과 외곽이 없고, 半兩의 두 글자가 매우 嚴正하다. 半兩의 서체는 '連山形半兩錢'에 가깝다.(그림 5-3,4,5) 이 거푸집은 서한 문제 前元 5년(기원전 175)에서 무제 建元 5년(기원전 136) 사이에 주조된 사수반량전 거푸집으로 짐작된다.

대동강면토성[31] 출토품은 보고서에 크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거푸집 2매 모두 일부가 유실된 것으로서 錢文 일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이들 2매의 거푸집은 동시에 출토된 것이 아니고 각각 山田銈治郎과 河原健之助 등에 의해 수집된 것이다. 도판에 소개된 사진을 통해 반량전의 전문을 살펴보면 문제대의 連山形半兩錢에 가깝다.(그림 5-6,7) 또한 서체상 앞의 토성동토성 출토품과 매우 유사하다.

낙랑토성 출토품 1매는 길이 4.5cm, 폭 2.8cm, 두께 1.1cm의 것이다. 사암제로 보고되었으나 활석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제기되었다.[32] 대부분이 깨져 없어졌기 때문에 '반량'의 두 글자를 완전히 확인할 수는 없고, 다만 '兩'자만 온전히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이 없고 도면만 소개되었는데, 도면으로 보아서는 十字形半兩錢에 해당한다.(그림 5-8)

평양 출토품은 故김양선이 1940년대 평양에 있었던 시절에 수집한 것을 한국기독교박물관에 기증한 것이다. 길이 18.9cm, 폭 11.3cm, 두께 2.2cm이다. 활석제이며 끝부분 일부가 약간 유실되었다. 거푸집의 앞면과 뒷면에 모두 반량전문이 있는 '雙面范'이다.(그림 10-1,2) 앞면에는 중앙의 注入口를 기준으로 하여 좌우 두 구획으로 나뉜 공간에 좌 6매, 우8매 모두 14매가 확인된다. 전문의 크기는 직경 2.2~2.6cm이고 穿徑은 0.7~0.9cm 가량이다. 半兩의 서체는 '十字形半兩錢'이다. 뒷면에는 주입구를 기준으로 하여 좌우에 26매씩의 전문이 있다. 앞면의 반량전보다 작다. 전문의 직경은 1.4~1.6cm이고 穿徑은 0.4~0.6cm이다. 역시 앞면과 같은 十字形半兩錢이다. 이 전문은 한초에 주조된 榆莢半兩錢(혹은 莢錢이라고도 함)일 것으로 짐작된다. 榆莢半兩錢은 한 고조 원년인 기원전 206년부터 주조되기 시작하였으며 官외에 民에서도 주조가 비교적 자유롭게 행해졌다. 큰 것은 직경이 2cm 이상인 것도 있고 작은 것은 1cm가 채 못되는 것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직경 1.5~2.5cm 정도 이다. 무게는 대개 1g에 못 미친다. 서체는 連山形, 雙人形, 十字形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쌍면범은 산동성 博興에서 두 차례에 걸쳐 출토된 바 있으며, 평양 출토품과 같은 십자형 유협반량전범이 사천성 등지에서 출토된 바 있다.[33] 이외 산동성 辛張, 章丘, 營縣 등지에서 유협반량전과 거푸집이 다수 출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민간에서 주조한 것이다.[34] 이러한 유협반량전범은 반량전 중에서도 비교적 이른 시기의 것으

31) 關野貞 外, 1927,「樂浪郡時代ノ遺蹟(本文)」『古蹟調査特別報告』第四冊, 35~38쪽.
_____, 1925,「樂浪郡時代ノ遺蹟(圖版上冊)」『古蹟調査特別報告』第四冊, 圖版 59-61.
32) 鄭仁盛, 2001,「樂浪土城と青銅器製作」『東京大學考古學研究室研究紀要』16, 東京大學考古學研究室.
33) 唐石父, 2001,『中國古錢幣』, 上海古蹟出版社.
34) 蔣若是, 1997,「論莢錢」『秦漢錢幣研究』, 中華書局, 65~72쪽.

www.kci.go.kr

로서 평양출토품의 편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상과 같이 평양 지역에서 출토하였다고 전해지는 거푸집은 한 고조대의 유협반량전범을 비롯하여 문제와 무제 대의 것이다. 이는 이들 거푸집이 낙랑군 설치보다 앞선 시기에 반입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들 거푸집을 군현설치 후에 반입된 것으로 본다면 굳이 폐지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반량전 거푸집을 반입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군현설치 시에는 당시 중원지역에서 발행, 유통되고 있었을 오수전 거푸집을 반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물론 반량전이 폐지된 이후에도 주변의 군현에서는 여전히 반량전의 주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 역시 명확하지 않다. 만약 그렇다하더라도 이는 이전부터 주전이 이루어졌음을 전재하는 것이 되므로 평양 출토 거푸집은 위만조선 시기, 혹은 이보다 약간 이른 시기부터 그 지역에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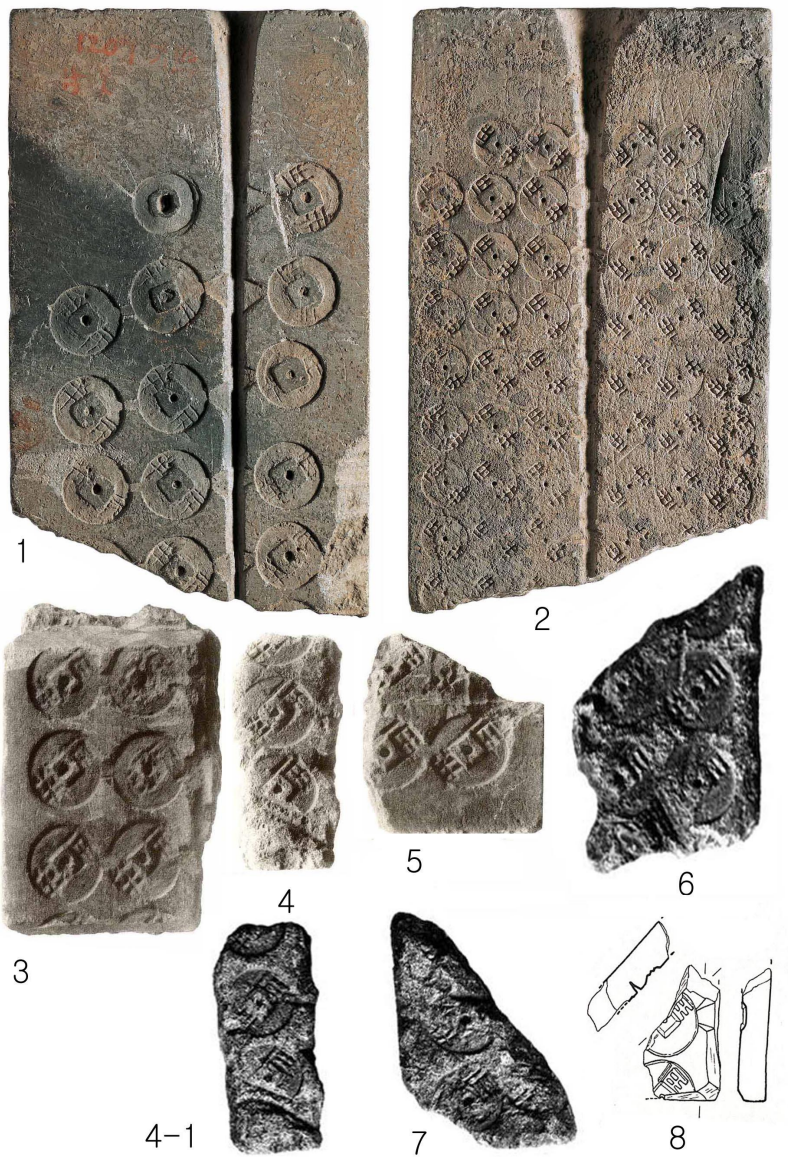
활석제 거푸집은 중원지역에서도 다수 발견되기 때문에 이들 거푸집 자체가 외부에서 유입된 것인지 아니면 주전을 위하여 거푸집 자체가 평양지역에서 제작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거푸집 자체가 불에 닿은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주전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전혀 없지 않다. 현재로서는 이들 거푸집의 성격이나 유입 경위에 대해서 단언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위만조선의 국가적 성격, 즉 '外臣의 約'과 위만조선이 수행한 교역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향후 이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바이나, 고조선에 중원지역으로부터의 유이민 이입이 잦았다는 점, 위만조선 시기에 한나라와 '外臣의 約'[35]을 통해 '兵威財物'을 획득하고 동이 제부족에 대한 宗主적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평양일대의 거푸집에 대한 이해를 위해 다음의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겠다. 첫째, 반량전 거푸집을 소지한 중원계 주민의 이동 둘째, '外臣의 約'에 의한 주조권의 획득과 '歲幣와 關市'[36] 등을 통한 입수 셋째, 위만조선이 한 초기의 반량전을 모방하여 주전하여 유통시켰고 넷째, 이러한 주전이 낙랑설치 이후 당분간 지속되었을 가능성 등 이다. 만약 평양 일대에서 주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변지역의 반량전 출토 사례가 극히 드문 점으로 보아 대외교역용으로 발행되었을 것이다.

35) '約'이란 국가 간의 약속, 즉 국제상 조약의 의미를 가지며 법에 준하는 강제적 구속력을 갖춘 제도적 장치였다. 그러나 위만조선과 한 사이에 체결된 '約'은 어디까지나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고대동아시아세계의 국제질서를 규정하는 제도적이고 要式的 형태에 불과하였다. 왜냐하면 위만조선과 漢의 관계를 규정한 '약'의 실제 내용은 양자의 쌍무적 입장을 대등하게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김한규, 1980, 「衛滿朝鮮關係 中國側 史料에 대한 再檢討」『부산여대논문집』8, 8~10쪽)

36) 위만조선이 한나라와 '外臣의 約'을 통해 획득한 '兵威財物'은 주변의 남월, 흉노의 예과 같이 '歲幣'와 '關市' 등 공·사적 교류를 통해 이동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www.kci.go.kr



1.2.평양(1.앞면 2.뒷면) 3~5.토성동토성 4-1,6,7.대동강면토성 8.낙랑토성

縮尺不同

* 사진 1과 2는 한국기독교박물관 제공, 4와 4-1은 같은 개체이나 본문 구성상 구분하여 제시함.

〈그림 5〉 평양지역 출토 반량전 거푸집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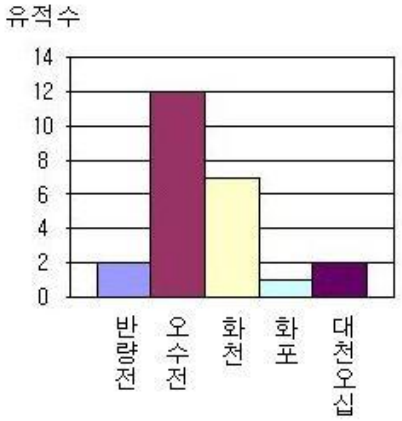
2. 한반도 중부이남

한반도 중부 이남에서 발견된 화폐는 반량전, 오수전, 화천, 화포, 대천오십 등 다섯 종류이다. 아래의 〈표 3〉, 〈그림 6〉, 〈그림 7〉은 한반도 중부 이남에서 조사된 화폐의 종류를 나타낸 것이다.

〈표 3〉 한반도 중부이남 한대 화폐 유적에서 출토된 화폐의 종류

종류	매수	출 토 지	크 기 (단위 ㎝)	형 태	출토 정황
오수전	2	강릉 초당동 강릉고교 화장실증축부지1호주거지	1.직경2.8.두께? 무게? 2.직경2.6.두께? 무게?	1.穿上橫文(?) 앞면에 내곽없음. 2.앞면에 내곽없음.	주거지 안
오수전	1	서울 풍납동 당지구101호유구	직경2.45~2.5.두께0.7~1.0.무게?	앞면 내곽없고 외곽이 비교적 좁음.	제사유구
반량전	1	완주군 상운리1호분구 2호묘			분구묘-토광목곽묘
화천	2	나주 낭동	1.직경2.3.두께0.15.무게2.5g. 2.유실부분이 심해서 알 수 없음.	1.앞면에 내곽없고 뒷면 내외곽있음. 2.앞뒷면에 내외곽 있음.	주거지 말목유구
오수전	1	대구 경산임당AI-74호묘	직경2.6.두께? 무게?	穿下半星文	목관묘
오수전	1	대구 경산임당AI-121호묘	직경2.6.두께? 무게?	無特徵錢	목관묘
오수전	1	대구 경산임당E-132호묘	직경2.56.두께? 무게?	穿下半星文	목관묘
오수전	3	영천시 고경면 용전리	1.직경2.6.두께0.1무게2.2g. 2.직경2.6.두께0.1.무게2.1g. 3.직경2.6.두께0.1.무게1.6g.	3매 모두 無特徵錢	목관묘
오수전	1	마산시 외동 성산패총	직경2.4.두께? 무게?	穿上半星文	패총
화천	1	김해 회현리패총	직경2.25.두께0.12.무게?		패총
오수전	3	창원 다호리 1호묘	1.직경2.5.두께?무게2.9g. 2.직경2.55.두께?무게3.25g. 3.직경2.5.두께?무게3.8g.	穿上橫文1, 四決文1, 無特徵錢1	목관묘
반량전	4	사천 늑도패총 C지구 상층부	직경2.3.두께0.1.무게2.19g.	사수반량전	패총지역 상층부
오수전	1		직경2.5.두께?무게?		
오수전	980	여천 거문도	1류.직경2.48~2.66.두께0.13~0.22.무게2.48~4.36g. 2류.직경2.69~1.96.두께0.13~0.23.무게2.89~4.28g. 3류.직경2.52~2.71.두께0.11~0.19.무게2.18~3.34g.	1류.穿上橫文 74매. 2류.穿上半星文 52매. 3류.무특징전 106매.	난파선으로 추정
화천	1	해남 군곡리패총 B2-11층	직경2.5.두께0.2.무게2.77g.		패총
화천	11	제주 산지항	직경2.2~27,두께0.09~0.17,무게?		?
대천오십	2		직경2.73,두께0.23.무게5.76g.	적동질로 비교적 연함.	
화포	1		길이5.78,폭 2.25,두께0.22.무게12.83g.		
오수전	4		직경 2.51-2.62,두께0.12.무게2.71~3.0g.	앞면에 내곽 없고 뒷면에 無文.	
화천	2	제주 금성리	1.직경2.1.두께0.1. 무게? 2.직경2.1.두께0.2. 무게?		원형돌담주거지
화천	1	제주 종달리	직경2.3.두께? 무게?		패총 2문화층
오수전	11	전 제주도			?
대천오십	5				
화천	5				

www.kci.go.kr



〈그림 6〉 한반도 중부이남의 한대 화폐 유적수



〈그림 7〉 한반도 중부이남의 화폐별 출토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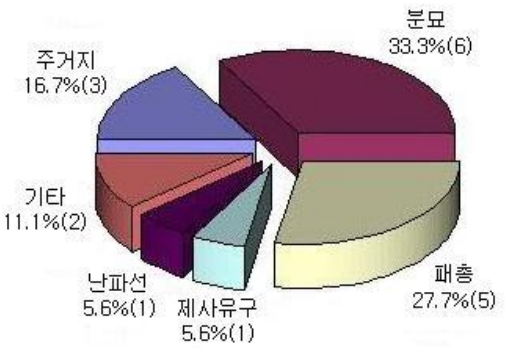
출토된 화폐를 유적수로 비교하여 보면 오수전이 12곳으로 가장 많고 화천도 7곳으로 비교적 많은 편에 속한다. 서한 반량전, 대천오십이 각각 2 곳, 화포가 1곳에서 출토하였다. 출토량을 보면 오수전이 가장 많은데, 여천 거문도유적에서 한꺼번에 발견된 980여매가 포함된 것이다. 그 외에는 1~3매 가량의 동전이 같은 유구에서 출토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 경우 화천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출토된 동전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역시 학계에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으므로 본고에서 재론하지 않기로 한다.[37] 한반도 중부 이남의 경우도 화폐유적수와 출토량을 통해 서한 말 이후 꾸준히 이 지역에 화폐가 유입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화폐가 출토된 유구의 성격을 보면 한반도 북부의 경우와 다른 양상이 나타나 주목된다. 〈그림 8〉은 한반도 중부이남에서 조사된 화폐유적을 유구의 성격별로 구분한 것이다.

중부 이남의 경우 18곳의 화폐유적 중 무덤과 패총에서의 출토가 각각 6곳이고 이외 주거지, 제사유구 등에서 출토되고 있다. 무덤의 종류는 목관묘, 토광목곽묘 등이다. 패총에서의 화폐 출토가 많은 것은 유적의 위치가 해안가에 인접해 있다는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무덤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는 북부에 비하여 다양한 유적에서 출토되고 있는 셈이다.

37) 金京七, 2008,『湖南地方 原三國時代 對外交流에 대한 硏究』, 공주대학교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박선미, 2008, 앞의 글.
이영훈・이양수, 2007,「한반도 남부 출토 오수전에 대하여」『永川 龍田里遺蹟』, 국립경주박물관.

www.kci.go.kr



〈그림 8〉 한반도 중부이남 화폐 출토 유구의 성격

화폐가 출토된 유구의 규모와 공반유물을 보면 화폐가 공반되지 않는 경우보다 큰 편에 속하며 공반유물도 풍부하고 화려한 편이다. 이 점은 한반도 북부와 유사하다. 늑도유적[38]에서는 C지구 패총지역 상층부에서 반량전과 오수전 등이 출토하였는데, 그 아래층이 상층부에 비하여 분포범위가 좁고, 유물의 출토 양이 급감하며, 인골, 견골, 낙랑계토기와 같은 요소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보아 상층부가 형성된 시기에 와서 교역의 거점으로 부상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량전을 실견한 연구서[39]의 설명에 따르면 문제대의 連山形半兩錢과 무제대의 十字形半兩錢이 모두 확인된다. 오수전은 형태상 서한 무제대의 것과 유사하다. 상층부에서 출토된 낙랑계토기의 편년, 미생문화 중기단계의 편년, 당시 한나라와의 교류가 낙랑을 통한 간접교역 형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낙랑에서 유통되었거나 제작되었던 화폐가 이 지역에 유입되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40] 경북 영천시 용전리 목관묘[41]에서는 오수전과 함께 쇠낫, 주조철부, 청동제 꺾창집 한 세트, 청동꺽창, 원통형 와질토기, 구멍 뚫린 구형토제품, 와질장경호, 원판형 토제품, 漆皮 등이 출토하였다. 창원 다호리[42] 1호 무덤에서는 오수전과 함께 청동검, 철제검, 철제 도끼, 星雲文鏡, 帶鉤, 銅鐸, 붓 등 다양하고 화려한 유물이 출토하였다. 이 유적에서 출토된 붓은 다호리 지역에서 직접 제작된 것이다. 당시 문자를 쓸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극히 좁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호리 1호 무덤은 교역에 관계하였던 수장급의 무덤으로 짐작된다.[43] 임당유적[44]의 경우도 오수전이 출토된 유구가 그렇지 않은 유구보다 훨씬 많은 철기가 부장되어 있어

38) 동아대학교박물관, 2003, 『發掘 遺蹟과 遺物』, 예맥출판사.
39) 신용민, 2003, 「사천 늑도유적 출토 반량전·오수전 소고」 『경남지역의 고대문화』, 경남지역문제연구원.
40) 이동주, 2004, 앞의 글.
41) 국립경주박물관, 2007, 앞의 글.
42) 이건무·이영훈·윤광진·신대곤, 1989, 앞의 글.
43) 이건무, 1992, 「다호리유적 출토 붓(筆)에 대하여」 『고고학지』4, 한국고고미술연구소.

www.kci.go.kr

단위집단 내의 계층구조상 상위신분을 나타내는 위세품으로 판단하고 있다.[45]

이외 중부 이남의 화폐유적에서 주목되는 점은 여천 거문도(전남 여천군 삼산면 서도리)의 화폐출토 정황이다. 거문도유적[46]은 1977년 7월 주민이 바닷가에서 모래를 채취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것으로 木船의 부재로 생각되는 나무조각들과 함께 수습되었다. 수습된 화폐는 980매의 서한과 동한 오수전이다. 이 유적은 퇴장[47] 혹은 난파선[48]으로 짐작되고 있는데, 해안가의 위치라는 점과 목재의 공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난파선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들 화폐가 선박에 적재되어 있었던 것이라면 교역을 위해 운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한반도 중부 이남의 화폐유적은 첫째, 하천과 교통로를 따라 분포한다는 점 둘째, 공반유물이 풍부하고 화려하다는 점 등에서 부호층 혹은 상인층의 화폐사용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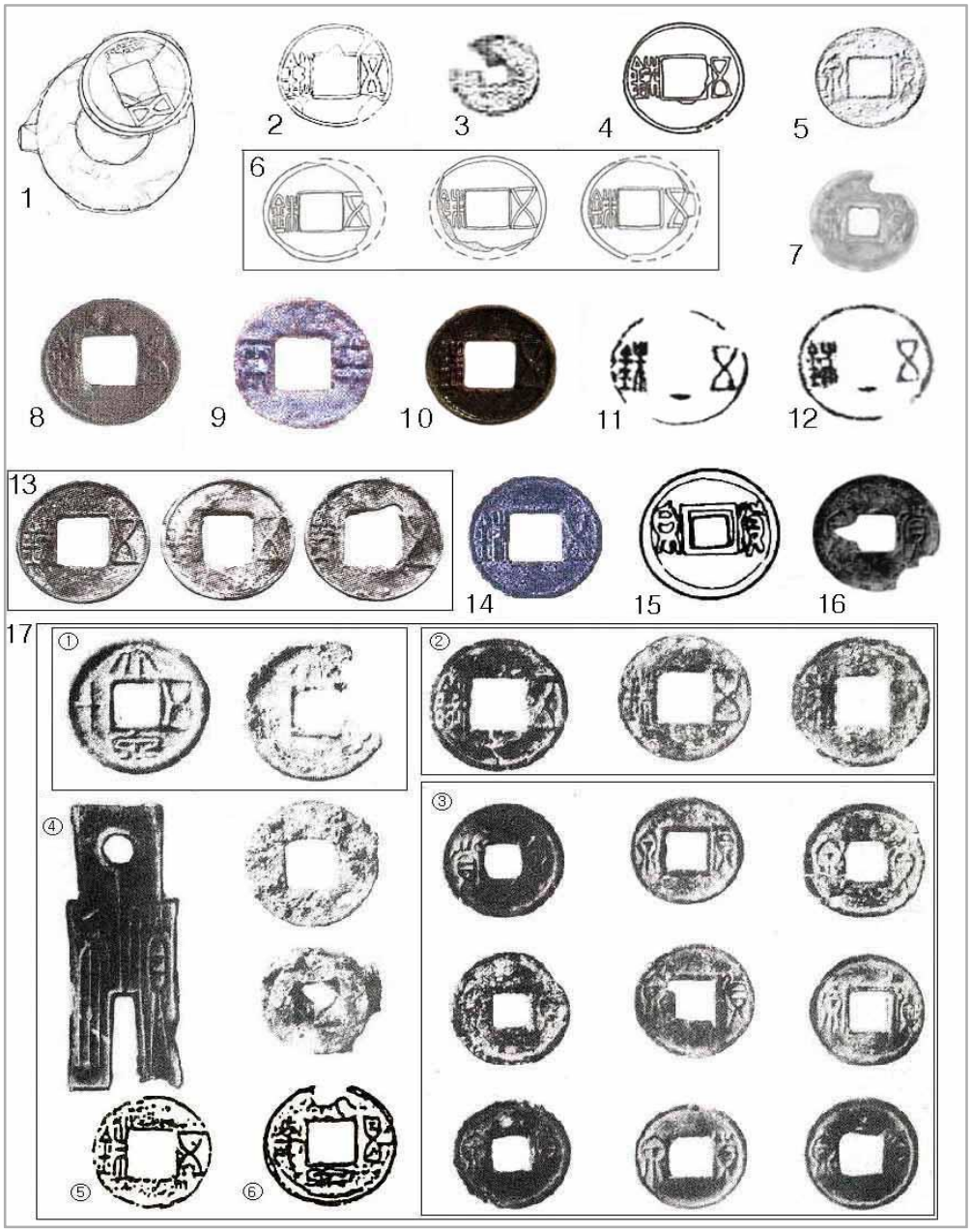
중부 이남에서 발견되는 화폐의 유입 경로에 대해서는 중국-한반도 서남부-일본열도로 이어지는 해상루트 상에 당시 중국과의 교역 중에 유입되었다고 보는 경우,[49] 낙랑에 들어온 한나라 상인에 의해 유입되었을 경우,[50] 낙랑과의 간접적인 교역에 의해 유입되었을 경우,[51] 중국(낙랑)상인과의 시장교환에 의해 유입되었을 경우[52]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한편 한반도 중부 이남에서 출토된 화폐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사천 늑도유적과 완주 상운리에서 출토된 반량전이다. 전라남도 강진(혹 전라남도 무안)에서도 명도전이 출토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53] 상인에 의한 訛傳인 것으로 확인됐다.[54] 완주 상운리[55] 출토 반량전은 아직 정확한 감별이 되지 않고 있으며, 화폐가 출토된 유구도 4세기 중후반으로 편년되는 분구묘이다. 傳世된 반량전이 부장된 듯한데, 傳世된 반량전이 완주지역으로 유입된 것인지 혹은 완주지역에 유입된 반량전이 전세되어 부장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늑도 출토품이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인 셈이다. 늑도유적은 기원전 1세기 이후로 중심연대가 추정되고 있다.[56]

---

44)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8,『慶山 林堂遺蹟(Ⅰ)-A~B地區 古墳群』및『慶山 林堂遺蹟(Ⅵ)-E地區 古墳群』.
45) 金洙南, 2000,「임당유적 원삼국시대 목관묘」『임당의 고분과 생활유적』, 학연문화사, 150쪽.
46) 지건길, 1990,「南海岸地方 漢代貨幣 『昌山金正基博士華甲記念論叢』, 昌山金正基博士華甲記念論叢刊行委員會.
47) 국립중앙박물관, 1998,『고고유물로 본 한국고대국가의 형성』(도록), 119쪽.
48) 정인성, 2003, 앞의 글.
49) 최성락, 1993,『韓國 原三國文化의 硏究』, 학연문화사, 224~226쪽.
50) 이현혜, 1998,「삼한의 대외교역체계 『한국고대의 생산과 교역』, 일조각.
51) 이건무, 2001,「늑도유적을 통해 본 고대 국제교류 『늑도유적을 통해 본 한·중·일 고대문화 교류』, 경상대학교박물관.
金京七, 2008, 앞의 글.
52) 이재현, 2003,「對內外 교류의 양상」『弁·辰韓社會의 考古學的 硏究』, 부산대박물관.
53) 朝鮮總督府, 1925,『大正十四年度古蹟調査報告』第二冊, 133~134쪽.
54) 藤田亮策, 1948,「朝鮮發見の明刀錢と其遺蹟」『朝鮮考古學硏究』, 高棟書院, 238~239쪽.
55) 김승옥·이택구, 2004,「완주 상운리유적 발굴조사 개보『 제28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발표요지』, 한국고고학회.
56) 반량전과 오수전이 출토된 늑도유적 C지구의 연대는 상한이 기원전 3세기 말 혹은 기원전 2세기 초, 하한이

www.kci.go.kr



1.강릉 초당동 강릉고교 2.풍납동 경당지구 3.김해 회현리 4,11,12.경산 임당 5.제주 종달리 6.영천 용전리 7.제주 금성리
8.성산패총 9,10.사천 늑도 13.창원 다호리 14.여천 거문도 15.해남 군곡리 16.나주 낭동 17.제주 산지항 縮尺不同

〈그림 9〉 한반도 남부 출토 각종 화폐

기원 전후로 편년되고 있다.(이동주, 2004, 앞의 글.)

www.kci.go.kr

다음으로 이른 시기의 화폐가 출토된 곳은 서한 오수전이 출토된 마산 성산패총, 창원 다호리, 경산 임당 등이다. 이외의 나머지 유적은 貨泉, 大泉五十, 貨布 등 왕망대의 동전과 동한대 오수전이 출토된 예이다. 모두 기원후 1세기 이후로 편년되는 것들이다. 이상을 통해 보면 한반도 중부 이남으로 화폐가 유입되기 시작한 시기를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후 1세기대로 보는 견해는[57] 타당하다.

그러면 왜 기원전 1세기 이후에야 비로소 화폐가 한반도 중부 이남으로 확대되는 것인가? 주지하다시피 기원전 1세기는 고조선의 멸망과 한군현의 설치라는 일대 정치적 변동이 발생한 직후이다. 이 두 사건은 한반도의 교역체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는 항을 바꾸어 살펴보도록 하자.

Ⅳ. 삼한지역의 교역확대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반도 중부 이남에 화폐가 유입되기 시작한 시기는 기원전 1세기경부터이다. 현재까지 한반도에서 조사된 화폐유적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 보면 고조선 시기와 멸망 이후 시기의 분포 양상에서 뚜렷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표 4〉와 〈지도 2〉는 현재까지 조사된 한반도의 화폐유적을 나타낸 것이다.

〈표 4〉 한반도에서 조사된 화폐유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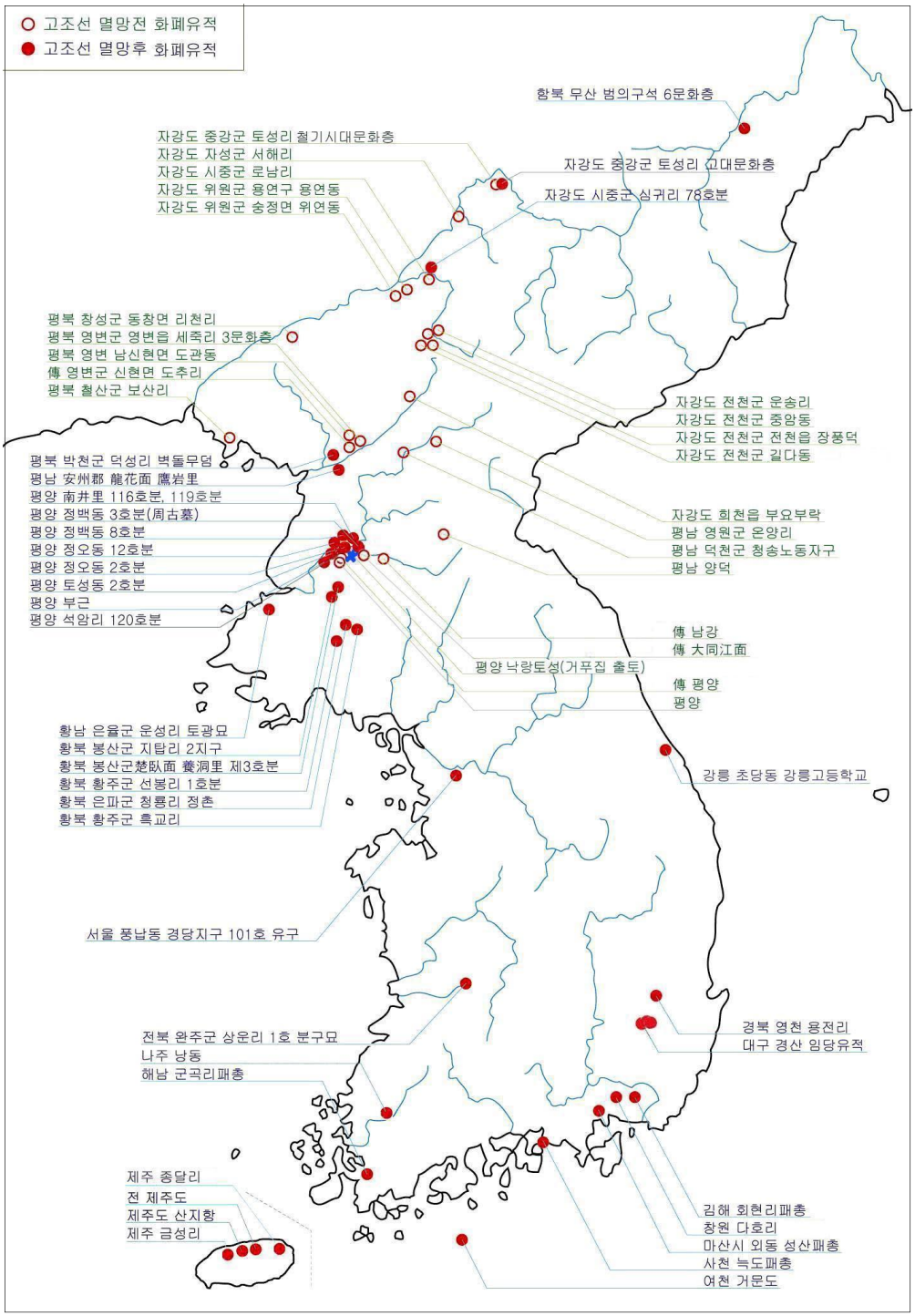
유 적	화폐 종류	유 적	화폐 종류
함북 무산 범의구석 6문화층	오수전	평양 낙랑토성	사수반량전, 반량전 거푸집 6개체, 오수전, 화천, 화포, 대천오십, 소천직일 등
자강도 시중군 심귀리 78호 무덤	오수전1	평양	반량전 거푸집
자강도 토성리유적 고대문화층	오수전 소량	傳 大同江面	명도전 수매
자강도 토성리유적 철기시대문화층	오수전 소량	傳 평양	명도전 소량
자강도 전천군 운송리	명도전 5,000여매	傳 남강	명도전 소량

57) 지건길, 1990, 앞의 글.
박순발, 2001, 「마한 대외교섭의 변천과 백제의 등장」『백제연구』33,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이건무, 2001, 앞의 글.

www.kci.go.kr

자강도 시중군 로남리	명도전2조각, 오수전1	평양 부근	오수전 수십매, 小泉直一1, 貨泉5, 貨布1
자강도 위원군 용연구 용연동	명도전 400매이상	황남 은율군 운성리 토광묘	서한오수전1
자강도 희천읍 부요부락	명도전 50여매	황북 봉산군 지탑리 2지구	오수전1
자강도 자성군 서해리	명도전 2,000여매, 일화전650, 반량전3	황북 봉산군 楚臥面 養洞里 제3호분	대천오십5
자강도 전천군 중암동	명도전 250여매	황북 황주군 선봉리 1호묘	오수전9
자강도 전천군(구 疆界郡) 길다동	명도전 4,000여매	황북 은파군 청룡리 정촌	오수전3
자강도 전천군 전천읍 장풍덕	명도전 최소 2,700여매 이상	황북 황주군 흑교리	서한오수전2
자강도 위원군 숭정면 위연동	명도전 완전한 것만 560여매	강릉 초당동 강릉고교	오수전2
평북 영변군 영변읍 세죽리 3문화층	명도전 2,500여매, 포전(안양포,양평포)	서울 풍납동 경당지구 101호 유구	오수전1
평북 영변군 남신현면 도관동	명도전 100매 이상	전북 완주군 상운리 1호 분구묘	반량전
傳 영변군 신현면 도추리	명도전1	전남 나주 낭동	화천1
평북 창성군 동창면 리천리	명도전 약50매	대구 경산 임당AI-74호묘	오수전1
평북 철산군 보산리	명도전 수백매	대구 경산 임당AI-121호묘	오수전1
평북 박천군 덕성리 벽돌무덤	오수전38	대구 경산 임당E-132호묘	오수전1
평남 安州郡 龍花面 鷹岩里	오수전5	경북 영천시 고경면 용전리	오수전3
평남 영원군 온양리	명도전 수백매, 포전23	마산 성산패총	오수전1
평남 양덕	명도전	김해 회현리패총	화천1
평남 덕천군 청송노동자구	명도전4,280, 포전299, 일화전91	창원 다호리 1호묘	오수전3
평양 정백동 3호분(周古墓)	명도전2, 오수전10	사천 늑도패총	사수반량전4,오수전1
평양 정백동 8호분	貨貝100여매	여천 거문도	오수전980
평양 정오동 12호분	오수전 60여매	해남 군곡리패총	화천1
평양 정오동 2호분	오수전1	제주 산지항	오수전4, 화천11, 대천오십2, 화포1
평양 토성동 2호분	오수전6	제주 금성리	화천2
평양 남정리 116호분	오수전85, 화천2	제주 종달리	화천1
평양 석암리 120호분	오수전 2백수십매	전 제주도	오수전11, 대천오십5, 화천5

www.kci.go.kr



〈지도 2〉 한반도에서 조사된 화폐유적의 위치

www.kci.go.kr

위의 〈지도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고조선 시기의 화폐유적은 한반도 중부이남, 정확하게 말하면 대동강의 남쪽 지류인 남강 아래쪽에는 분포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의 화폐유적을 보면 한반도 남부까지 분포범위가 확대된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은 이러한 현상과 함께 한반도 중부 이남에서 나타나는 유물 출토상의 변화 양상이다. 즉 한반도 중부 이남에서는 漢鏡, 馬面, 帶鉤, 낙랑계토기 등 한나라 유물과 한나라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유물의 출토가 증가한다. 한마디로 한나라 문화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것은 세형동검의 퇴화, 漢鏡과 鐵器의 증가로 이어진다.

현재까지 중부 이남에서 출토된 한경은 한반도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30여 점이다.[58] 창원 다호리, 김해 양동리, 익산 왕궁면 평장리 등에서 前漢鏡인 星雲文鏡과 方格規矩四神鏡 등이 출토되었다. 영천 어은동, 대구 평리동과 지산동, 경주 조양동, 김해 양동리, 익산 연동리와 금마면, 부여 장암면, 제주도 건입동 등에서는 日光鏡, 昭明鏡, 內行花文鏡 등 동한대의 거울이 출토되었다. 분포지역을 보면 대부분 辰·弁韓 지역에 편재되어 있으며 한반도 서북부와는 달리 戰國式鏡이 출토되지 않고 前漢鏡인 星雲文鏡부터 나타난다. 물론 그 이전의 것으로 보이는 蟠螭文鏡片이 익산 왕궁면 평장리에서 세형동검과 출토된 예가 있다. 평장리 출토품은 한군현 설치 이전인 서한 초기에 제작된 것이다. 이 때문에 이 지역으로의 漢鏡 유입을 고조선 準王의 南遷과 연관지어 보기도 한다.[59] 평장리유적 외에는 대부분 고조선 멸망 후인 기원전 1세기 이후로 편년되고 있다.

따라서 漢鏡의 본격적 유입 시기는 기원전 1세기 초반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 대체로 기원전 2세기 후반에서 기원전 1세기 초반에 낙랑지역으로 먼저 유입되고, 기원전 1세기 말 한반도 남부까지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60]

토기의 경우도 삼한지역에서는 1~3세기경에 와질토기가 유행하는데 밀폐요에 의한 소성, 회전판에 의한 성형, 拍子에 의한 整形이어서 북부지방의 낙랑토기와의 유사성이 보인다.[61] 와질토기는 경주 조양동묘군, 의창 다호리묘군, 부산 노포동묘군, 김해 양동리 TLV鏡墓 등 대체로 큰 규모의 분묘에서 다수 출토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기원전 1세기 이후부터 한반도 중부 이남지역에서는 중원 지역의 화폐가 새롭게 유입됨과 동시에 한나라의 문물이 다량으로 수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폐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은 漢式遺物과 상위신분을 나타내는 위신재가 많고, 같은 유적 내에서도 화폐가 출토된 유구는 규모와 공반유물에서 우월성을 나타내고 있다. 화폐의 출토, 화려하고 풍부한 유물의 공반,

58) 강은영, 2001, 「漢鏡의 제작과 辰·弁韓지역 유입 과정」『한국사론』46,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59) 전영래, 1987, 「금강유역 청동기문화권 신자료」『백제연구』10, 마한백제문화연구소, 90~96쪽.
60) 강은영, 2001, 위의 글.
61) 최종규, 1999, 『삼한고고학연구』(1995년 초판 발행), 서경문화사, 171쪽.

www.kci.go.kr

유적의 위치 등을 종합해 볼 때 화폐유적이 발견된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교역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영남지역에서는 기원전 4세기 이후 중심거점을 통한 지역간 교환경제가 나타나는데,[62] 기존의 고조선을 통한 제한적인 교역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이러한 양상이 이후 화폐가 출토된 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낙랑군을 통한 한나라와의 직접교역으로 발전한 것이 아닌가 한다.

주지하다 시피 고조선에 의해 수용된 중원계 문물은 곧바로 한반도 중부 이남까지 전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조선 시기 한반도 중부 이남에서 출토된 중원계 유물 가운데 교역의 증거로 볼만한 확실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완주 상림리유적[63]의 동주식 동검 26점, 울산 下岱M23의 銅鼎,[64] 김해시 양동리 M322[65]의 銅鼎과 2점의 수정구슬 등이 출토되었으나 이들 유물은 이 지역과 산동반도 사이에 이루어진 직접 교역의 증거로 보기도 한다.[66] 그러나 戰國~秦漢 초의 화폐가 고조선의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지는 않지만 한편으로는 부여 합송리, 당진 소소리, 장수 남양리 등의 유적에서 세형동검과 함께 전국계 철기가 공반되고 있다. 이들 철기는 위만조선을 경유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 문화권에 편입된 요동지역으로부터 직간접적의 교류 혹은 무역의 결과로 보고 있다.[67] 따라서 고조선은 燕·秦·漢으로 대표되는 중원지역의 정치세력과 辰國으로 대표되는 한반도 이남의 정치세력 사이에 위치하면서 교역의 완급을 어느 정도 조절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고조선은 중원지역과의 교역을 위해 화폐가 필요하였을 것이다. 반대로 아직 국가단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던 한반도 중부 이남지역과의 교역에서는 위신재 위주의 거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 때문에 고조선 지역에 외래화폐가 유입되었으나 주변지역으로까지 확대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필자는 이와 같은 고조선의 교역형태를 緩衝交易(Buffer Zone Trade)이라 부른바 있다.[68] 완충교역이란 완충지대로서 B지역이 선진문물을 보유하는 A지역과 상대적으로 후진문물을 보유하는 C지역 사이에 위치하면서 C- 이때 C지역의 정치체는 다수가 될 수 있음 -지역으로 하여금 선진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주는 한편 새로운 문물의 유입에 의한 충격을 완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토착사회, 또는 토착문화의 해체나 와해를 방지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의 교역을 말한다. 따라서 A지역의 물질문화가 C지역에서 발견되데 그 강도는 B지역을 통해

62) 金玉順, 2004,『4~5世紀 嶺南地域 交換體系의 考古學的 硏究』,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3) 전영래, 1977,「完州 上林里 出土 中國式 銅劍에 關하여 『全北遺蹟調査報告』6.
64) 부산대학교박물관, 1997,『蔚山 下岱 遺蹟 - 古墳I』, 부산대학교박물관.
65) 동의대학교박물관, 2000,『金海 良洞里 古墳文化』, 동의대학교박물관.
66) 李彗竹·王靑, 2002,「後期靑銅器~初期鐵器時代 中國山東地域과 韓國間의 交流 『백산학보』32, 11~21쪽.
67) 이청규, 2002,「韓中交流에 대한 考古學的 접근-청동기시대에서 철기시대까지- 『한국고대사연구』32, 한국고대사학회, 115~116쪽.
68) 박선미, 2008, 앞의 글, 206~210쪽.

www.kci.go.kr

유입되기 때문에 훨씬 약화된다. 즉 문화충격이 완화됨을 의미한다. 주변 정치체들은 고조선이라는 완충지대를 통해 선진문물을 수입하는 한편 아직 미숙한 자국의 문화를 보지하면서 선진문물을 수용, 토착화하였을 것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B지역에는 A지역에 나타나는 여러 문화요소가 발견되며, 한편으로는 B지역의 문화가 일부 A화되는 모습까지 나타난다. 화폐는 그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볼 수 있다.

고조선이 수행한 완충교역은 고조선이 중원지역의 선진문물을 수입하고 주변의 군소세력을 병합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한반도 중부 이남의 재지세력에게는 고조선을 통해 중원지역 혹은 고조선의 선진문물을 위신재로 수입하면서 문화충격을 완화하고 토착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작용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완충교역의 소멸은 한반도 중부 이남지역에 있던 정치체로 하여금 한나라의 문물에 대한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한편 정치체의 분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낙랑군과 한반도 중부 이남의 정치세력, 즉 삼한과의 교역양상에 대해서는 낙랑관련 유물의 유입시기와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여러 시기로 나누어 고찰한 견해가 있다.[69] 낙랑 설치 초기는 郡內外 토착민의 저항, 진번·임둔군의 폐지에 따른 영역 재편 등이 이어지던 혼란기였다. 이때는 공식적인 교역보다는 주민의 이주와 그에 따른 교류가 더 많았을 것이다. 한나라 宣帝 이후부터는 안정기로 접어들었고 문헌에 낙랑군과 주변민족의 공식적 교섭에 관한 기록도 빈번하게 나타난다. 삼한과 낙랑의 교역도 이때부터 본격화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삼국지』 동이전 韓條에 인용된 염사치의 조공기사는 왕망 지황 연간(기원후 20~22년)에 이루어진 일로서 군현 설치 이후 단절된 두 지역간 교섭의 재개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70] 또한 임당과 다호리 유적은 동일문화권에 있었다고 보일 정도로 출토유물에서 많은 유사성이 발견되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낙랑을 통한 한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71] 결국 완충교역이 소멸하면서 기존에 고조선이 수행하였던 완충교역 대신 낙랑군을 통한 한나라와의 직접 교역시스템이 들어서게 된 셈이다.

교역의 성격 면에서 고조선 시기와 낙랑 시기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다. 고조선 시기의 교역은 주변지역이 외래물품이나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완충교역의 성격이 강하였다면 낙랑은 한나라의 군현으로서 한나라의 문물이나 문화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하였다. 삼한사회는 고조선을 통한 제한적인 수입이나 수출을 하는 대신 낙랑을 통하

69) 金京七, 2008, 앞의 글.
정인성, 2003, 앞의 글.
이재현, 2001,「勒島遺蹟B地區發掘調査槪要 『勒島遺蹟을 통해 본 韓·中·日 古代文化交流』, 경상대학교박물관.
70) 윤용구, 2004,「三韓과 樂浪의 교섭」『한국고대사연구』34, 125~144쪽.
71) 金洙南, 2000, 앞의 글, 150쪽.

www.kci.go.kr

여 한나라 전역과 직접 교역을 하게 되었다. 삼한사회는 한나라 물품을 대상으로 하여 공무역, 사무역, 내부교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하였을 것이다.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다양한 종류의 왕망전은 대부분 중원 지역과 유통시기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낙랑이라는 對漢 교역 창구를 통해 중원 지역의 물품이 한반도로 유입되는데 걸리는 기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 결과 기원전 1세기 이후 한반도 남부지역에는 한식유물이 비교적 다량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때에도 한식 문물은 여전히 낙랑 지역에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진 후 어느 정도 토착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2차 교류가 진행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와질토기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경도 낙랑지역으로 먼저 유입되고, 다시 기원전 1세기 말 한반도 남부에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낙랑군 설치 직후 한반도 중부 이남에 낙랑관련 유물이 유입되는 시기에 지역별 편차가 있다는 연구가[72] 있으나 낙랑군을 통한 삼한사회의 교역 확대는 일반적인 흐름이었다고 생각된다.

삼한지역의 교역확대는 다음의 두 가지 방면에서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對낙랑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對倭교역도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기원전후를 시작으로 한반도 남부지역에 倭系 청동기가 출현하게 되며 남부 해안의 주요 지역이 교역의 중개지로서 부상하였다는[73] 것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둘째는 단위집단의 특정 상품에 대한 접근성이 보다 수월해지면서 중부이남 지역에 존재했던 지역집단간의 차별화와 집단 내 계층화를 촉진시킨 것으로 보인다. 화폐유적에서 공반된 유물은 漢式 유물과 상위신분을 나타내는 위신재가 많다. 또한 화폐가 출토된 유구는 같은 유적 내에서도 규모와 공반유물에서 우월성을 나타내고 있어서 화폐 사용자의 신분을 짐작하게 하고 있다. 문헌에는 辰國으로 대표되는 한반도 중부 이남의 정치체가 삼한으로 대체된다. 漢-고조선-辰國의 교역 관계에서 漢-(한군현)-삼한이라는 새로운 교역 관계가 들어섰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한반도 내부 정치세력의 변화는 한대화폐의 유입, 한계 유물의 증가 등 여러 현상과 연동해서 생각해볼 수 있겠다.

한편 화폐유적의 분포양상과 수량에서 알 수 있듯이 중부 이남에서 조사된 한대화폐는 주로 교역장이 있던 해안 지역 등 거점지에서 적은 양이 유통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화폐의 분포가 고르지 않고 강과 하천 등 교통로를 따라 분포한다는 점도 외부 교역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각 유적의 화폐 출토량이 많지 않다는 점은 유통면에서 이들 화폐가 교역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였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화폐가 출토된 유구의 규모와 공반유물 등을 통해 한반도에서 화폐를 사용하였던 신분은 부호층이나 상인층 등 특정 신분으로 제한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72) 이재현, 2005, 「남한출토 낙랑관련 유물의 현황과 성격」, 제33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문.
73) 金京七, 2008, 앞의 글, 68~71쪽.

www.kci.go.kr

이와 관련하여 남한지역의 화폐사용이 부진했던 이유를 한반도지역의 경제 상황이 명목상의 가치를 가진 금속화폐가 광범하게 유통될 정도로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거나[74] 혹은 유통경제의 미성숙에서 찾기도 한다.[75] 그러나 이것이 삼한지역이나 한국고대사에서 화폐유통이 활발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전부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한반도 동북지역과 황해도 지역에 이미 실물화폐가 유입되어 있었고[76] 삼한사회에 철 등을 소재로 한 실물화폐가 통용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삼한인들 역시 화폐의 효용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화폐가 동시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유통이 활발하지 못했던 원인은 화폐에 대한 관념이 다른 지역과 달랐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고대사회와 화폐의 상관성에 대한 문제는 한국고대사회의 화폐에 대한 인식체계로부터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Ⅴ. 맺음말

본고는 고조선 멸망 후 한반도의 화폐 출토 양상에 변화가 있음을 주목하고 그 의미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현재까지 한반도에서 조사된 화폐유적 중 고조선 멸망 이후로 편년되는 화폐유적은 39곳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중 절반가량이 한반도 중부 이남에 분포한다. 명도전 등 앞선 시기의 화폐가 후대의 화폐와 함께 무덤 등에서 공반하는 경우도 있으나 주로 오수전과 왕망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화폐유적의 분포양상을 보면 한반도 서북부 지역에서는 화폐유적이 평양지역으로 집중되며 주로 무덤에서 출토된다. 중부 이남지역에서는 해안이나 해안에 가까운 하천 주변에 분포하며, 내륙에 위치한 경우라 하더라도 외부로 쉽게 통하는 교통의 要路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당시 평양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화폐가 중부이남지역으로 유입되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평양 일대에서는 비교적 보존상태가 좋은 반량전 거푸집 1점과 잔편 6점이 출토한 바 있다. 이들 거푸집은 그동안 한군현 설치 이후로 편년되면서 낙랑군에서 주전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고고학 자료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본고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들 거푸집은 고조선 시기에 이미 평양지역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화폐의 유입과 함께 한반도 중부 이남지역에서는 漢鏡, 馬面, 帶鉤, 낙랑계토기 등 한나라의 문물과 한나라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유물의 출토가 증가한다. 이러한

74) 榮原永遠男, 1993,「日本古代錢貨と呪力」『日本古代錢貨流通史の硏究』, 塙書房.
75) 김창석, 2004,『삼국과 통일신라의 유통체계 연구』, 일조각.
76) 박선미, 2005,「웅기 송평동 출토 貝殼 및 貝殼形 玉 검토 『한국고고학보』56, 한국고고학회.

www.kci.go.kr

변동이 일어나는 기원전 1세기는 고조선의 멸망과 한군현의 설치라는 정치적 변동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은 시기이다. 화폐의 평양지역 집중현상과 한반도 중부 이남으로의 확산, 漢物과 漢式文物의 증가는 이러한 정치적 변동과 연동해서 나타난 현상이라 생각된다.

고조선은 중원과 주변지역의 정치체 사이에 위치하면서 일종의 완충교역(Buffer Zone Trade)을 수행하였다. 완충교역은 주변지역으로 하여금 중원의 선진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는 한편 주변지역의 대외교역을 어느 정도 제어하였다. 완충교역이 주변사회에게는 어느 정도 제한적인 대외교역을 의미하였으나 동시에 외부문화로부터의 충격을 완화시키고 토착적 전통위에 정치세력을 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하였다. 또한 한나라로서는 고조선과 '外臣의 約'을 맺음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동시에 주변 정치세력의 위협이나 위만조선의 팽창을 사전에 막고자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완충교역은 古朝鮮, 辰國(혹은 衆國), 漢이라는 삼자 모두에게 필요충분조건을 충족시켜주는 교역형태였다.

그러나 고조선의 멸망과 함께 완충교역이 사라지면서 한반도 중부 이남에 존재했던 정치세력간의 교역 또는 대외교역체계에 변동이 발생하였다. 완충교역이라는 삼한사회의 제한적 對漢 교역은 한나라에 의해 설치된 낙랑군을 통한 직접교역으로 변화되었다. 漢-古朝鮮-辰國의 교역관계에서 漢-(한군현)-삼한이라는 새로운 교역 관계가 들어섰던 것이다. 이러한 교역관계는 삼한사회로 하여금 한나라의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기능하였으며, 이는 곧 교역품의 증가로 나타났다. 평양지역으로 집중되는 화폐유적, 한반도 중부이남 화폐유적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나타나는 특징 등을 통해 볼 때 삼한사회의 對漢 교역체계는 화폐출토 지점을 교역의 거점으로 하여 낙랑군을 창구로 한 직접교역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삼한지역의 교역확대는 對倭교역의 확대와 집단 간 계층화를 촉진시켰다. 기원전후를 시작으로 하여 한반도 남부지역에 倭系 청동기가 출현하며 남부 해안의 주요 지역이 교역의 중개지로 부상한다. 또한 문헌에 辰國으로 대표되는 한반도 중부 이남의 정치체가 삼한으로 대체되는데, 이는 한반도 중부 이남에 존재하였던 단위집단의 특정 상품에 대한 접근성이 보다 수월해지면서 중부이남 지역에 존재했던 지역집단간의 차별화와 집단 내 계층화를 촉진시킨 결과로 볼 수 있다.

附記 : 숭실대학 한국기독교박물관에 소장, 전시되어있는 평양 출토 반량전 거푸집을 實見하고 略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병현 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논문 투고일 : 08. 03. 22 논문 심사완료일 : 08. 04. 25 게재확정일 : 08. 06. 13

www.kci.go.kr

【參考文獻】

강원문화재연구소, 2005,「강릉고등학교화장실 증축공사부지 내 문화유적 시굴조사보고서」『강릉지역 문화유적시굴조사 보고서』.
강은영, 2001,「漢鏡의 제작과 辰·弁韓지역 유입 과정」『한국사론』46,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5,「무산범의구석」『고고민속논문집』6.
사회과학원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58,「황해남도 은률군 운성리 토광묘 발굴 보고」『고고학자료집』1.
_____, 1959,「황해북도 황주군 선봉리1호묘 발굴 정리보고」『고고학자료집』2.
국립경주박물관, 2004,「永川市 古鏡面 龍田里 1297-2번지 목관묘 緊急收拾發掘調查」, 지도위원회자료.
국립경주박물관, 2007,『永川 龍田里 遺蹟』.
국립제주박물관, 2006,『濟州 終達里遺蹟 Ⅰ』.
金京七, 2008,『湖南地方 原三國時代 對外交流에 대한 硏究』, 공주대학교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金洙南, 2000,「임당유적 원삼국시대 목관묘」『임당의 고분과 생활유적』, 학연문화사.
김승옥·이택구, 2004,「완주 상운리유적 발굴조사 개보」제28회한국고고학전국대회발표요지.
金玉順, 2004,『4~5世紀 嶺南地域 交換體系의 考古學的 硏究』,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원룡, 1974,『韓國考古學年報』2, 서울대학교박물관.
金鍾太, 1977,「樂浪時代의 泉幣銘文考」『全北史學』1, 전북대학교사학회.
김창석, 2004,『삼국과 통일신라의 유통체계 연구』, 일조각.
김한규, 1980,「衛滿朝鮮關係 中國側 史料에 대한 再檢討」『부산여대논문집』8.
도유호, 1961,「지탑리원시유적」『유적발굴보고(지탑리원시유적 발굴보고)』8, 과학원출판사.
도유호·황기덕, 1957,「지탑리유적 발굴 중간보고(1)(2)」『문화유산』5, 6호.
東 潮, 1995,「弁辰과 加耶의 鐵」『加耶諸國의 鐵』, 신서원.
동아대학교박물관, 2003,『發掘 遺蹟과 遺物』, 예맥출판사.
동의대학교박물관, 2000,『金海 良洞里 古墳文化』, 동의대학교박물관.
류병흥, 1995,「단군 및 고조선 시기의 유적유물 발굴성과에 대하여」『조선고고연구』1호.
리순진, 1983,「우리나라 서북지방의 나무곽무덤에 대한 연구」『고고민속론문집』8.
박선미, 2005,「웅기 송평동 출토 貝殼 및 貝殼形 玉 검토」『한국고고학보』56, 한국고고학회.
_____, 2008,『貨幣遺蹟을 통해 본 古朝鮮의 交易』,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박순발, 2001,「마한 대외교섭의 변천과 백제의 등장」『백제연구』33,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박진욱, 1965,「평양일대에서 새로 발굴된 고인돌과 돌관무덤에 대하여」『조선고고연구』1호, 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
부산대학교박물관, 1997,『蔚山 下垈 遺蹟 - 古墳Ⅰ』, 부산대학교박물관.
사회과학원고고학및민속학연구소, 1959,「우리나라 원시유적의 분포정형」『문화유산』1.
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 1983,「낙랑구역일대의 고분 발굴보고」『고고학자료집』6.
宋桂鉉, 1995,「낙동강하류역의 고대 철생산」『加耶諸國의 鐵』, 신서원.

www.kci.go.kr

신용민, 2003,「사천 늑도유적 출토 반량전·오수전 소고」『경남지역의 고대문화』, 경남지역문제연구원.
신의주박물관, 1961,「평안북도 박천군 덕성리 전곽무덤 발굴 간략 보고」『문화유산』5.
영남대학교박물관, 1990,『1989-1990 發掘 慶山 林堂宅地開發地區 古墳發掘調査槪況』.
오영찬, 2005,『樂浪·帶方郡 支配勢力 硏究』,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윤용구, 1999,「삼한의 조공무역에 대한 일고찰」『역사학보』162.
_____, 2004,「三韓과 樂浪의 교섭」『한국고대사연구』34.
의주박물관, 1961,「평안북도 박천군 덕성리 전곽무덤 발굴 간략 보고」『문화유산』5.
이건무·이영훈·윤광진·신대곤, 1989,「義昌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Ⅰ)」『고고학지』1.
이건무, 1992,「다호리유적 출토 붓(筆)에 대하여」『고고학지』4.
_____, 2001,「늑도유적을 통해 본 고대 국제교류」『늑도유적을 통해 본 한·중·일 고대문화 교류』, 경상대학교박물관.
이동주, 2004,「泗川 勒島遺蹟 C地區의 調査成果」, 영남고고학회 제13회 학술발표회발표요지문.
이부오, 2001,「1세기 초 廉斯國의 대외교섭」『한국고대사연구』22.
이양수, 2006,「한반도에서 漢鏡의 분배와 유통」『고고학지』15, 한국고고미술사학회.
이영훈·이양수, 2007,「한반도 남부 출토 오수전에 대하여」『永川 龍田里遺蹟』, 국립경주박물관.
이재현, 2001,「勒島遺蹟B地區發掘調査槪要」『勒島遺蹟을 통해 본 韓·中·日 古代 文化 交流』, 경상대학교박물관.
_____, 2003,「對內外 교류의 양상」『弁·辰韓社會의 考古學的 硏究』, 부산대박물관.
이청규, 1995,『濟州道 考古學 硏究』, 학연문화사.
이청규·강창화, 1994,「濟州道 出土 漢代 화폐유물의 한 例」『한국상고사학보』17.
이현혜, 1998,「삼한의 대외교역체계」『한국고대의 생산과 교역』, 일조각.
李彗竹·王 靑, 2002,「後期靑銅器~初期鐵器時代 中國山東地域과 韓國間의 交流」『백산학보』32.
전남문화재연구원, 2004,『羅州 郎洞遺蹟』, 전남문화재연구원·나주시.
전북대학교박물관, 2004,「익산-장수간 고속도로 건설구간내 완주 상운리 유적 발굴조사 제2차 지도위원회의 및 1차 현장설명회자료」.
전영래, 1977,「完州 上林里 出土 中國式 銅劍에 關하여」『全北遺蹟調査報告』6.
_____, 1987,「금강유역 청동기문화권 신자료」『백제연구』10,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정인성, 2003,「弁韓·加耶의 對外交涉-樂浪郡과의 교섭관계를 중심으로」『가야 고고학의 새로운 조명』, 부산대학교 한민족문화연구소편
_____, 2001,「樂浪土城と靑銅器製作」『東京大學考古學硏究室硏究紀要』16.
정찬영, 1983,「압록강·독로강 유역 고구려 유적 발굴보고」『유적발굴보고』13,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제주대학교박물관, 2001,『濟州錦城里遺蹟』,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제주대학교박물관·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주영헌, 1963,「고구려 봉토 무덤의 기원과 그 변천」『고고민속』3.
지건길, 1990,「南海岸地方 漢代貨幣」『昌山金正基博士華甲記念論叢』, 昌山金正基博士華甲記念論叢刊行委員會.
최몽룡, 1976,「西南區貝塚發掘調査報告」『馬山市外洞城山貝塚發掘調査報告』, 문화재관리국.
최성락, 1987,『海南 郡谷里貝塚』1, 목포대학교박물관·전라남도 해남군.

www.kci.go.kr

_____, 1993,『韓國 原三國文化의 硏究』, 학연문화사.
최종규, 1999,『삼한고고학연구』(1995년 초판 발행), 서경문화사.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8,『慶山 林堂遺蹟(Ⅰ)-A~B地區 古墳群』및『慶山 林堂遺蹟(Ⅵ)-E地區 古墳群』.
한국상고사학회 편, 2000,『임당의 고분과 생활유적』, 학연문화사.
한신대학교박물관, 2005,『風納土城 Ⅵ - 慶堂地區 中層 101號 遺構에 대한 報告-』, 국립문화재연구소・한신대학교 박물관.
황기덕, 1959,「1958년 춘하기 어지돈 관개공사구역 유적정리 간략보고(Ⅱ)」『문화유산』2.
황기덕・박진욱・정찬영, 1971,「기원전 5세기~기원전 3세기 서북조선의 문화」『고고민속론문집』3.
蔣若是, 1997,『秦漢錢幣硏究』, 中華書局.
岡內三眞, 1930,「漢代五銖錢の硏究」『朝鮮學報』102, 朝鮮學會.
關野貞 外, 1927,「樂浪郡時代ノ遺蹟(本文)」『古蹟調査特別報告』第四冊.
_____, 1925,「樂浪郡時代ノ遺蹟(圖版上冊)」『古蹟調査特別報告』第四冊.
駒井和愛, 1964,「樂浪郡治址」『考古學硏究』第三冊, 東京大學文學部考古學硏究室
黨順民, 1997,「藕心錢小議」『中國錢幣』1, 中國錢幣學會.
藤田亮策, 1935,『古蹟調査報告第二-樂浪王光墓』, 朝鮮古蹟硏究會.
_____, 1948,「朝鮮發見の明刀錢と其遺蹟」『朝鮮考古學硏究』, 高棟書院.
梅原末治, 1923,「金海貝塚發掘調査報告」『大正九年古蹟調査報告 I』.
梅原末治・藤田亮策 編著, 1947,『朝鮮古文化綜鑑』Ⅰ卷, 養德社.
_____, 1948,『朝鮮古文化綜鑑』Ⅱ卷, 養德社.
_____, 1959,『朝鮮古文化綜鑑』Ⅲ卷, 養德社.
濱田耕作, 1934,『古蹟調査報告第一 - 樂浪彩篋塚』, 朝鮮古蹟硏究會.
榮原永遠男, 1993,「日本古代錢貨と呪力」『日本古代錢貨流通史の硏究』, 塙書房.

www.kci.go.kr

The Significance of Coins from the Han China Period Excavated in the Korean Peninsular.

: In relation to changes of exchange system in the Samhan(三韓) area after Old-Chosun's collapse

Park, Sun-Mi

In 1 B.C., after the collapse of Old-Chosun, there are changes in excavation aspects of coins in the Korean Peninsular. Fewer numbers of coin assemblages were found in northwest Old-Chosun, and among them, more were unearthed from tombs. Compared to the rare discoveries before, significantly increased Han China coin collections have been revealed in the central-southern region; coins such as Banliang coins(半兩錢) and Osoo coins(五銖錢).

So far 30 sites have yielded coins from the Han Dynasty period. All sites in the northwest Korean Peninsular were discovered mostly centering on Pyungyang(平壤) and its environs while more finds were located along the shoreline than inland in the central-southern area.

These shifts seem to have a connection with Old-Chosun's collapse. The coin appearance in central-southern Old-Chosun implies the disappearance of Old-Chosun, which played as a Buffer Zone Trader in that region. Old-Chosun was located between China (the Han Dynasty, then) and Samhan(三韓, adjoining three forces in central-southern of the Korean Peninsular), and made a route to pass Chinese culture to Samhan. Old-Chosun also controlled trade with it.

However, once Old-Chosun fell, the trade between two regions went under direct control of Hansagoon(漢四郡), four Han Chinese commanderies. Afterwards, Samhan started accepting full culture from Han Dynasty and exchange items between became greater in number. The increased discovery of Han Chinese Style Bronze Mirror from Samhan ruins demonstrates this well.

Key words : Old-Chosun, Samhan, Osoo coin, Banliang coin, exchange, Buffer Zone Trade

www.kci.go.kr